DOCUMENT RESUME

ED 055 492 FL 002 559

TITLE	Korean Advanced Course, Volume I.
INSTITUTION	Defense Language Inst., Washington, D.C.
SPONS AGENCY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REPORT NO	06KP24
PUB DATE	Jul 71
NOTE	179p.
AVAILABLE FROM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e, Department of the Army, U.S. Naval Station, Anacostia Annex, Washington, D.C. 20390 (With specific permission)
EDRS PRICE	MF-$0.65 HC Not Available from EDRS.
DESCRIPTORS	Cultural Education; Educational Policy; Government (Administrative Body); *Instructional Materials; Interviews; *Korean; *Korean Culture; Modern Languages; *Reading Materials; *Reading Skills; Religious Cultural Groups; Sociocultural Patterns; Socioeconomic Influences

ABSTRACT

This is the first of 7 readers for continuation training in Korea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Korean Basic Course" prepared by 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 Units 1-11 are practical situation dialogues written for the course and center on topics related to sports, social events, police administration, and dialects. Interviews with key governmental figures are included. Units 12-20 are articles drawn from readers published in 1970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pics focus on sociocultural concerns including the live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s and of philosophical leaders. Korean calligraphy is used exclusively. (RL)

ED055492

K O R E A N

ADVANCED COURSE

VOLUME I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OFFICE OF EDUCATION
THIS DOCUMENT HAS BEEN REPRODUCED EXACTLY AS RECEIVED FROM THE PERSON OR ORGANIZATION ORIGINATING IT. POINTS OF VIEW OR OPINIONS STATE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OFFICIAL OFFICE OF EDUCATION POSITION OR POLICY.

FL002559

July 1971

DEFENSE LANGUAGE INSTITUTE

DEFENSE LANGUAGE INSTITUTE

This pamphlet is for use by the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 solely for official purposes. It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It may NOT be released to other persons, quoted or extracted for publication, or otherwise copied or distribut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in each instance from the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e.

"PERMISSION TO REPRODUCE THIS COPYRIGHTED MATERIAL BY MICROFICHE ONLY HAS BEEN GRANTED BY

Defense Language Institute

TO ERIC AND ORGANIZATIONS OPERATING UNDER AGREEMENTS WITH THE U.S. OFFICE OF EDUCATION. FURTHER REPRODUCTION OUTSIDE THE ERIC SYSTEM REQUIRES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Roy M Kessler

ROY M. KESSLER
Colonel, USA
Director

PREFACE

This is the first of seven readers for continuation training in Korean after the Basic Course.

Units 1-11 are practical situation dialogues written especially for this course. Units 12-20 are articles drawn from several reader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70. Each unit concludes with a set of questions and a vocabulary.

The extent of coverage as well as the sequencing of the unit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instructor.

All inquiries concerning these materials, including requests for authorization to reproduce, should be addressed to the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e, U.S. Naval Station, Anacostia Annex, Washington, D.C. 20390.

TABLE OF CONTENTS

Unit		Page
1.	Invitation to a Soccer Game (by telephone)	1
2.	Visiting in a Hospital	5
3.	Communications Media	9
4.	Dialects	13
5.	A Dinner Party	17
6.	The Police System	23
7.	Interview with the Secretary of Communications	27
8.	Interview with the President of an Industrial Bank	31
9.	Interview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37
10.	Interview with the Secretary of Education	43
11.	Captured Guerrillas	49
12.	Scenario: Lighthouse	57
13.	The Life of a Crow	75
14.	Life in South Korea	85
15.	Life in North Korea	105
16.	Buddha	123
17.	Confucius	129
18.	Socrates	135
19.	Jesus Christ	141
20.	A Christmas Carol	147

At the Kyonghoeru (pavilion) in Kyongbok Palace in Seoul.

Elderly Koreans play baduk (go) in the drawing room of a typical Korean-style house.

1 축구시합에 초대 (전화로)

1. 전 : 여보십시요. 민선생 이십니까?
민 : 예, 전선생입니까? 오랫동안 못 찾아가 뵈서 실례했읍니다.

2. 전 : 갑자기 말씀 드려서 어떨가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축구시합 입장권이 두장 들어왔는데, 같이 안가시겠읍니까?
민 : 연세대학 대 고려대학 시합 이지요? 그것은 볼만 하겠군요. 꼭 가고 싶은데요.

3. 전 : 그럼, 시합시간 조금전에 서울운동장 축구장 지정석 입구에서 만납시다.
민 : 예, 그러십시다. 그럼, 열두시 쯤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4. 전 : 그럼, 그때 뵙겠읍니다.
민 : 그시간에 뵙지요.

·——·——·——·——·——·

5. 민 : 기다리게해서 미안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전 : 아니요, 한십분전에 왔읍니다.

6. 민 : 구경군이 꽤 많은데요!
전 : 연세대학 대 고려대학 시합은 전통이 있어서 언제든지 인기가 많으니까요. 혼잡한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7. 민 : 그럼, 표를 가지고 줄에 섭시다.
전 : 예.

8. 민 : 자, 같이 들어 가십시다.
전 : 어서 먼저 들어 가십시요.

9. 민 : 그럼, 먼저 실례합니다.

QUESTIONS

1. 민선생이 왜 전선생한테 실례했다고 했읍니까?
2. 전선생한테 무슨 입장권이 들어왔읍니까?
3. 전선생이 누구를 어디에 초대했읍니까?
4. 오늘 축구시합은 왜 불만합니까?
5. 전선생하고 민선생은 몇시에 어데서 만나기로 했읍니까?

6.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읍니까?
7. 구경군의 수가 얼마나 됐읍니까?
8. 왜 이 시합은 언제든지 인기가 있읍니까?
9. 입장하려고 이 두사람은 어디에 섰읍니까?
10. 지정석하고 일반석은 어떻게 다릅니까?

11. 축구시합은 구라파의 어느나라에서 인기가 있읍니까?
12. 남미에서는 어느나라에서 축구가 한국같이 인기가 있읍니까?

VOCABULARY

어떨가 생각하다		to think what it would be like
사실은		to tell the truth
축구시합	蹴球試合	football game
입장권	入場權	admission ticket
들어오다		to come in
연세대학	延世大学	Yonsei University
고려대학	高麗大学	Korean University
서울운동장		Seoul Stadium
축구장	蹴球場	football field
지정석	指定席	reserved seat
입구	入口	entrance
구경군	求景	spectator
전통	傳統	tradition
인기	人氣	popularity
혼잡	混雜	congestion
줄에서다		to stand in the line

2 병원 환자 문안

1. 朴 : 오병도씨가 입원하고 계시는 방이 어데 입니까?
간호원: 오씨의 입원실은 十五号室입니다.

2. 朴 : 여보세요, 간호원, 오병도씨 병세가 어떻습니까?
간호원: 入院後 경과가 퍽 좋습니다.

3. 朴 : 오씨를 뵙고 말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간호원: 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말씀 하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4. 朴 : 오선생, 안선생하고 같이 병문안 왔읍니다.
吳 : 먼길을 이렇게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5. 安 : 천만에요. 미리 찾아뵈었어야 할것을 사실은 병의 성질을 잘 몰랐기때문에 오늘이야 왔읍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吳 : 지난 三週日동안 쭉 경과가 좋습니다.

6. 朴 : 식욕은 있읍니까? 그리고 体溫은 멫도나 됩니까?
吳 : 三週日前까지는 열이 많았어요. 그리고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열이 내리면서 식욕이 좀 나기 시작했읍니다.

7. 安 : 그것은 참 多幸입니다. 식욕만 있으면 염려할것 없읍니다.

吳 : 예, 여러분이 걱정해주신 덕택에 곧 낳게되겠지요.

8. 朴 : 우리들은 오늘은 이만 실례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몸조리 잘 하십시요.
吳 : 예, 고맙습니다. 부인한테 안부드려주십시요.

9. 朴 : 예, 그러겠읍니다.

QUESTIONS

1. 입원실 十五号室에 있는 입원환자는 누구입니까?
2. 간호원이 오氏의 병세에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3. 간호원의 말에 의하면 오氏하고 면회할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4. 오氏가 누구를 보고 반가워했읍니까?
5. 안氏가 미리 찾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읍니까?

6. 환자는 대개 식욕이 있는것이 보통입니까? 없는것이 보통입니까?
7. 식욕만 있으면 염려할것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8. 체온에 대해서 오氏가 무슨말을 했읍니까?
9. 체온이 내렸다는 말은 대개 멫도라는 말 입니까?
10. 체온은 멫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까?

11.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를 아무때나 면회 할수있읍니까?

VOCABULARY

입원	入院	hospitalization
입원실	入院室	hospital room
십오호실	十五号室	Room No. 15
간호원	看護員	nurse
병세	病勢	condition of a patient
경과	經過	progress
병문안		visit to a sick person
일부러		on purpose
성질	性質	nature
식욕	食慾	appetite
체온	体溫	temperature
다행	多幸	good luck
몸조리		taking care of one's health
--한테 안부 드려주십시오		Give my best regards to ...
실례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I'm afraid) I must be going

3 통신

1. 킹 : 친구한테 전보를 보내고 싶은데 이 근처에 전보회사가 어데 있읍니까?
   한 : 한국에는 전보회사라는것이 따로 있지 않고 어디든지 우체국에 전보과가 있어 거기서 전보를 칠수있읍니다.

2. 킹 : 그것은 편리한데요. 전보과는 정부에 속합니까?
   한 : 예, 다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전보뿐만 아니라 전화도 체신부에 속합니다.

3. 킹 : 그럼 철도기관은 어떻습니까?
   한 : 교통부에서 국내에 있는 철도를 다 소유하고 경영합니다. 전차나 버스는 민간의 소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특히 전차는 반관반민의 회사체로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4. 킹 : 한국가정에서는 대개 전화가 있읍니까?
   한 : 아니오, 중류이상의 가정하고 회사나 관청에나 있지 그외에는 공중전화가 많습니다.

5. 킹 : 라디오 방송국이나 텔레비방송국도 정부에서 관리합니까?
   한 :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은 공보처에 속합니다.

6. 킹 : 그럼 공보처에서 테레비방송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까?

한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테레비를 가진 사람들이 매월 시청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용은 그것에서 배변수가 있읍니다.

7. 킹 :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마국과는 퍽 다릅니다.

한 : 그럼 미국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은 없군요?

8. 킹 : 예, 미국에서는 테레비 방송국이 다 민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광고주 한테서 돈을 받지요. 그런데 한국의 담배회사는 민간의 소유입니까?

한 : 아닙니다. 한국에는 민간이 소유하는 담배회사가 하나도 없읍니다. 정부에 속하는 전매국에서 담배에 관한 모든일을 관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삼도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QUESTIONS

1. 한국에는 전보회사대신에 무엇이 있읍니까?
2. 전보과는 어느 관청 안에 있읍니까?
3. 전보과는 누가 관리합니까?
4. 전화는 어느 부에 속합니까?
5. 교통부에서는 무엇을 경영합니까?

6. 市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 반관 반민의 회사체라면 무엇일까요?
8. 미국에도 반관반민의 회사체가 있읍니까? 있으면 예를 드십시오.
9. 전화의 소유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0. 공중전화의 수는 왜 많을까요?

11. 방송국은 어데 속합니까?
12. 한국에서 시청료는 무엇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내는 돈입니까?
13. 미국의 텔레비 방송국은 누구한테서 돈을 받아서 경영합니까?
14. 한국정부의 전매국은 무엇을 경영합니까?
15. 인삼은 왜 유명합니까?

VOCABULARY

속하다		to belong
관리하다	管理	to manage
체신부	遞信部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기관	機関	institution
소유하다	所有	to own
경영하다	經營	to manage
민간	民間	private, civilian
대부분	大部分	most, majority, major portion
반관반민	半官半民	semi-governmental management
관리	管理	administration
중류	中流	middle class
이상	以上	above
공중전화	公衆電話	public telephone
테레비		television
방송국	放送局	broadcasting station
공보처	公報處	the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비용	費用	expense
시청료		TV license fee
광고주	廣告主	advertiser
전매국	專賣局	the Monopoly Bureau
한국인삼	韓國人蔘	Korean ginseng

4 사투리

1. 넉순 : 한국말에 사투리가 얼마나 있읍니까?
   강 : 크게 노느면 서울부근을 빼놓고 남북 두개로 갈를수 있고. 더 자세히 가르면 八道마다 다 다른 사투리가 있읍니다.

2. 넉순 : 각도 사투리사이의 다른点이 무엇이겠읍니까?
   강 : 설명보다도 예를 드는것이 쉽겠지요. 먼저 평안도에서는 "ㅈ"소리가 "ㄷ"소리로 많이 나오지요. 가령 평안도에서는 "덩거당에 가니까, 벌건 댄기불이 번덕번덕하는데 탐 됴티 됴와."라고 합니다.

3. 넉순 : 무슨 의미입니까? 서울말로 해주십시오.
   강 : 서울말로 하면, "정거장에 가니까 벌건 전기불이 번적번적하는데 참 좋지 좋아."라는 말입니다.

4. 넉순 : 퍽 재미있읍니다. 함경도는 어떻습니까?
   강 : 같은 말을 함경도사투리로 흉내를 내지는 못 하지만 그쪽에서는 말이 억세고 말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것이 퍽 심합니다. 그외에 낱말에도 서울과 다른것이 많이 있읍니다. 서울말의 "제집애"를 그쪽에서는 "안깐나 새끼"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무시기"라고 합니다.

5. 넉순 : 한국 중부지방 사투리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강 : 중부지방에서도 대개 서울말과 비슷합니다. 황해도에서는 "읍니까?" 하는것을 "읍니껴?" 하는 정도고 서울에서도 장사치들이나 깡패들에는 "오"소리를 "우"소리로 많이 발음합니다. 그사람들은 "돈"을 "둔"이라고 하고, "좋다"를 "좋다"로 하고 "한다"를 "헌다"로 많이 합니다.

6. 넉순 : 사투리가 그렇게 많고 차가 있는줄 몰랐읍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은 어떻습니까?

강 : 일반적으로 충청도나 전라도에서는 말이 느린편이지요. 충청도에서는 "네"하고 대답하는것을 "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끝에 오는 "요"나 "오"가 "유"나 "우"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진지 잡수셨시유?"라고 합니다.

7. 넉순 : 국방언어학교에서 "예"라고 배웠는데 서울사람들은 "녜"라고 하든군요. "예"는 어데서 온 말입니까?

강 : 그것은 평안도말에서 온것입니다.

8. 넉순 : 경상도의 사투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강 : 경상도사투리도 함경도사투리처럼 퍽 억세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퍽 심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것을 들으면 마치 싸움이나 언쟁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보면 그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S

1. 한국의 사투리는 몇도로 갈를수있읍니까?
2. 미국에도 각주마다 다 다른 사투리가 있읍니까?
3. 평안도에서는 무슨 소리가 무슨소리로 많이 나옵니까?
4. 평안도에서는 "정거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5. "정선생"을 평안도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르겠읍니까?

6. 어느도의 사투리가 억세고 말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7. "안깐나새끼"는 어느도의 사투리이며 무슨 뜻입니까?
8. 서울말의 "무엇"을 함경도사투리로 흉내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9. 어느도에서 "읍니까?"대신에 "읍니껴?"라는 말을 합니까?
10. 원래 "예"는 어느도의 말이고 "녜" 하고 "여"는 어느도의 말입니까?

11. "둔"은 무슨 말이 변한것이며 어데사람이 많이 씁니까?
12. 어느도의사람들 이야기가 마치 싸움하는것 같이 들립니까?
13. 한국에 사투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4. 미국에 사투리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VOCABULARY

벌건		red
번적번적		brilliantly, glitteringly
흉내를 내다		to imitate
억세다		to be rough, strong
낱말		vocabulary
계집애		girl (pejorative)
특색	特色	characteristic, peculiarity
정도	程度	extent, degree
장사치		peddler
깡패		gangster
차	差	difference
일반적으로	一般的	generally speaking
언쟁		quarrel
경우	境遇	circumstance
왕래	往來	comings and goings
교환	交換	exchange
풍속	風俗	customs

5 연 회

1. 민 : 자, 다 왔읍니다.
   매담 : 어서 오십시오.

2. 정 : 아까 전화한 정상모요.
   매담 : 아, 정선생님, 이층에 아주 조용한 방을 잡아 놓았읍니다.

3. 존슨 : 신을 벗어야 합니까?
   정 : 예, 여기는 순 한국식 요리집이니까,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신을 안 벗는 서양식 요리집도 있지만 오늘은 일부러 여기에 모시고 왔읍니다.

4. 정 : 매담, 스만원짜리 상하고 기생셋만 불러주시오.
   매담 : 곧 불러드리지요.

5. 정 : 존슨선생, 오늘은 아마 미국에서 보시기 어려운 것을 보여드리지요.
   존슨 : 그게 무엇입니까?

6. 추월 : 실례합니다. 추월이라고 불러주세요.
   일선 : 저는 일선입니다
   향화 : 저는 향화라고 합니다.
   정 : 어서들 들어오시오. 여기 계신분은 민선생이고 저분은 미국에서 오신 존슨선생이고 나는 정이요. 우리 한번 기분 좀 내서 놉시다.

7. 존슨 : 이 분들은 일본의 게이샤들하고 비슷 합니까?

민 : 거의 같다고 말할수 있읍니다. 미국사람들이 日本의 게이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한국의 기생은 흔히 말하는 창녀들과는 절대로 다르고 또 아무 관계도 없읍니다. 여보, 추월이 한잔 따라주시오. 자, 당신도 한잔하고 ····

8. 존슨 : 맛이 좋은데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정 : 이것은 정종이라고 하는 쌀로 만든 술 입니다.

9. 민 : 자, 그럼, 향화, 소리 하나 하시오.

향화 : (장고를 치며)

한숨만 쉬어서 무엇하나
눈물만 흘려서 무멋하나
인생일장 춘몽인데
놀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너나노 —— 널너리야
너나노 —— 얼사좋다
절시구나 좋다

10. 존슨 : 무슨 노래 입니까?

민 : 한국의 민요입니다. 그 대강의 뜻은 人生이 짧은데 걱정을 잊어버리고 명랑하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11. 존슨 : 저 한테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퍽 재미 있읍니다.

민 : 한국에는 좋은 민요가 꽤 많이 있읍니다.

12. 존슨 : 기생들은 민요만 부릅니까?

민 : 전에는 그랬지만 요새는 유행가도 많이 합니다.

13. 존슨 : 기생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주십시오.

민 : 기생은 옛날부터 있었던 여자의 한 직업입니다. 대개 그들은 연회에서 남자들하고 같이 술을 짓거나 그림과 글씨를 쓰고, 또 가무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요새 와서는 주로 노래와 춤만 하게 됐읍니다.

14. 존슨 : 기생의 써-비스료는 얼마나 됩니까?

민 : 기생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 같이 갑종 요리집에 나오는 저런 女子들은 대개 화대로서 한시간에 二十四쫌은 주어야지요. 그리고 손님에 따라서는 그 외에 팁도 줍니다.

QUESTIONS

1. 멫사람이 요리집에 갔으며 외국손님이 멫분있었읍니까?
2. 그 요리집에 들어가기전에 누구나 다 신을 벗어야 했읍니까?
3. 서울의 서양식 요리집에서도 신을 벗어야 합니까?
4. 정선생이 멀마 짜리상을 시켰읍니까?
5. 매담한테 기생을 멫사람 불러 달라고 했읍니까?

6. 존슨선생이 전에 기생을 본 일이 있읍니까?
7. 누가 기생들을 정선생한테 소개 했읍니까?
8. 민선생은 기생이 어떤 사람하고 절대로 다르다고 했어요?
9. 정종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술 맛은 어떻습니까?
10.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해달라고 청했읍니까?

11. 향화가 무엇을 치면서 노래를 했읍니까?
12. 인생 일장춘몽이란 무슨 뜻입니까?
13. 한국의 민요가 존슨선생한테는 어떻게 들렸읍니까?
14. 기생들은 민요외에 또 무엇을 부릅니까?
15. 기생은 새로 생긴 한국여자의 직업입니까?

16. 옛날에 기생들은 연회에서 무엇을 해 왔읍니까?
17. 요새 기생들은 연회에서 무엇을 하지요?
18. 기생의 써-비스료는 얼마나 낸다고 했읍니까?
19. 갑종 요리집이란 어떠한 요리집 입니까?

VOCABULARY

연회	宴會	banquet
기생	妓生	Korean geisha
실례하다	失禮	to commit a discourtesy
기분을내다	氣分	to get happy
게이샤		Japanese geisha
흔히말하는		so called
창녀	娼女	licensed prostitute
절대로	絶對	absolutely
한잔		one cup
따르다		to pour (into)
정종		refined rice wine
따끈하다		to be fairly hot
소리		folksong
장고를치다		to play the drums
한숨을쉬다		to sigh
일생일장춘몽	一生一場春夢	Life is but an empty dream.
민요	民謠	folksong
대강		roughly
명랑하다	明朗	to be cheerful
유행가	流行歌	popular song
가무	歌舞	singing and dancing
써-비스료		service charge
갑종요리집	甲種料理	grade A restaurant
화대	花代	charge for Kisaeng

Actress Jimi Kim wears the traditional headdress and wedding dress of Korea.

6 경찰제도

1. 그린 : 어데 가거나 경찰은 같은 제복을 입었는데 한국의 경찰은 다 한 기관입니까?

   장 : 물론, 경찰은 다 한 기관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수 없는데 경찰이 여러 기관일수 있나요?

2. 그린 :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고 또 시마다 다르답니다.

   장 :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군요. 주마다 또 시마다 경찰들이 독립해 있으면 사무연락이 어떻게 잘 되겠읍니까?

3. 그린 :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지요. 한국의 경찰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장 : 한국의 경찰은 정부의 내무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의 관할하에 있지요. 각도에는 경무국이 있고 각군에는 경찰서가 있고 각면에는 지서가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은 특별시이니까 따로 경무국이 있고 각구에 경찰서가 있읍니다.

4. 그린 : 각구의 경찰서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장 : 중앙정부에서 다 임명합니다.

5. 그린 : 민법 특히 형법같은것은 도마다 법이 다릅니까?

   장 : 아니요, 한국에서는 刑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다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릅니까?

6. 그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계급은 무엇을 보고 압니까?

장 : 밑에서 부터 보면 아무것도 없는것이 순경이고 미국군인의 병장같이 작대기가 셋 팔에 있는것이 경사이고 어깨위에 무궁화가 하나 있는것이 경위고, 둘이 경감, 셋이 총경입니다.

7. 그린 : 그이들의 직무는 ---- ?

장 : 대개 경위가 지서주임이고 경감이 경찰서장이고 총경이 경무국장인데 서울에서는 총경이 경찰서장이고 경무관이 경무국장입니다.

8. 그린 : 경찰을 위해서 무슨 학교가 있는지요?

장 : 네, 서울에 경찰전문학교가 있고 경찰훈련소가 여기 저기 많이 있읍니다.

9. 그린 : 경찰전문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이 됩니까?

장 : 대개 경위가 됩니다.

10. 그린 : 경찰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은 무엇입니까?

장 : 고등학교졸업이 입학자격입니다.

QUESTIONS

1. 한국경찰에는 제복의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2. 한국경찰은 정부의 어느기관에 속합니까?
3. 한국의 경찰은 누구의 관할하에 있다고 할수 있어요?
4. 한국의 경찰은 각 도마다 무엇이 있읍니까?
5. 각 군에는 무엇이 있읍니까?

6. 한국의 경찰은 각 면에 무엇을 두었읍니까?
7. 서울 특별시에는 무엇이 있읍니까?
8. 서울 특별시의 각 구에는 무엇이 있읍니까?
9. 경찰서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10. 한국은 각도마다 민법이나 형법이 다 다릅니까?

11. 한국경찰의 제일 밑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12. 경사는 팔에 작대기가 몇 있읍니까?
13. 경위는 어깨위에 무엇이 있읍니까?
14. 경감은 어깨위에 무엇이 있읍니까?
15. 총경은 어떻습니까?

16. 경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17. 경감의 직무는 무엇이지요?
18. 총경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19. 어떤사람이 경찰전문학교에 입학 할수 있어요?
20. 경위가 되고 싶으면 무슨학교를 졸업하면 됩니까?

VOCABULARY

제복	制服	uniform
교환	交換	exchange
협조	協調	cooperation
경찰제도	警察制度	police system
내무부	內務部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장관	長官	cabinet minister
관할하	管轄下	within the jurisdiction
경무국	警務局	the Police Department
군	郡	county
면	面	sub-county
지서	支署	branch office
특별시	特別市	special city
구	區	district
임명	任命	appointment
중앙정부	中央政府	central government
민법	民法	civil law
형법	刑法	criminal law
작대기		pole
경사	警査	police sergeant
경위	警衛	police lieutenant
총경	總警	police superintendent
직무	職務	duty
주임	主任	head
전문학교	專門學校	college (technical)
자격	資格	qualification

7 대담

체신부장관 이씨와 여배우 엄양

1. 이 : 허어, 오늘은 진객이 찾아오셨군요.
   엄 : 일요 대담을 부탁 받아서 이렇게 찾아뵈었읍니다.

2. 이 : 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엄 : 요즘 우리 집에 팬레터가 많이 모고있어요. 그런데, 이런 서신과 소포등이 전국적으로 일개월간에 얼마나 취급되고 있는가요?

3. 이 :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팔백오십오만건이 됩니다.
   엄 : 장관께서 담배는 하루에 몇갑이나 피우시나요, 그리고 몇살때부터 인 가요?

4. 이 : 몇 갑이라니 ------ 그렇게 많이는 못 피웁니다. 스무개 짜리 한갑을 가지면 하루에 피우고 몇개 남지요. 담배는 사십 이후부터 피우기 시작했지요.
   엄 : 너무 딱딱한 질문만 했어요. 이번은 좀 색다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장관께서 몇살때 결혼하셨읍니까?

5. 이 : 허어, 이거 정말 색다른 이야기 인데 ------ 결혼은 늦게 했지요. 설흔살때 했으니까,
   엄 : 연애 결혼을 하셨나요 또는 중매결혼 인가요?

6. 이 : 만혼을 했는데 싫은 사람과 결혼을 할리는 없지요.
연애 결혼으로 볼수있을가 .....

엄 : 현재 서울시내에 공중전화는 몇대나 있읍니까?

7. 이 : 약 사백대 시설되어 있지요.

엄 : 좀 늘리지 않겠읍니까?

8. 이 : 이것도 연말까지 약 일백대 증설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엄 : 그런데, 장관님 하나 싫은 소리를 해야겠어요. 바쁜 일이 생겨서 꼭 말은 해야겠는데 수화기를 들고 「다이알」을 돌려도 전화가 도무지 안나올때가 많습니다.

9. 이 : 이거 참 미안한 일이외다. 점차적으로 좋아져 갈 것입니다.

엄 : 그런데, 부인이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중에 무엇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10. 이 : 마누라가 만드는 음식이면 뭐든지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엄 : 오늘은 너무 오랫동안 장관님의 시간을 소비시켰읍니다. 이만 일어서겠읍니다.

11. 이 : 미쓰 엄, 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고마웠소.

QUESTIONS

1. 어떤 손님을 보통 진객이라고 합니까?
2. 엄양이 팬레터를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체신부가 일개월간에 취급하는 우편물이 얼마나 됩니까?
4. 이장관은 언제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읍니까?
5. 이장관은 하루에 담배를 몇갑이나 피웁니까?

6. 이장관은 아직 독신입니까?
7. 멋살에 결혼하면 만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8. 이장관은 중매결혼을 했다고 볼수있읍니까?
9. 무엇이 서울시내에 사백대나 시설되어있어요?
10. 엄양이 이장관한테 실은 소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 이장관은 누가 만든 음식을 좋아 합니까?
12. "마누라"라는 말은 대개 언제 쓸수 있읍니까?
13. 제삼과에 의하면 한국 체신부에서는 우편물을 취급할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관리하고 경영합니까?

VOCABULARY

진객	珍客	rare guest
대담	對談	talk, conversation, interview
팬레터		fan letter
서신	書信	letter, correspondence
전국적	全國的	nation-wide
취급	取扱	handling
통계	統計	statistics
딱딱하다		to be hard
색다르다	色	to be different
연애	戀愛	romance
중매	仲媒	matchmaking
싫다		to dislike
리	理	reason
공중전화	公衆電話	public telephone
증설	增設	establishing more
수화기	受話機	receiver (telephone)
다이얄		dial
도무지		quite
점차적	漸次的	gradual
마누라		one's wife (pejorative humble)
무조건	無條件	unconditional
소비	消費	expenditures, consumption

8 대 담

산업은행총재구씨 와 여류가수신양

1. 신 : 바쁘실텐데 이와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 어서 오십시요. 이리 좀 앉으시죠

2. 신 : 그럼 실례하겠읍니다.
   구 : 요즘 신 여사 께서는 공연 때문에 한창 바쁘시겠군요.

3. 신 : 뭐 그다지 바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총재님의 취미는 뭣인가요?
   구 : 독서를 좋아 합니다. 좋아 하지만 원래 바빠서 책을 읽을 만 한 시간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일간신문 같은 것은 반 졸면서도 대부분은 다 읽은 셈 입니다.

4. 신 : 그외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가령 스포-츠 라든가 오락 같은것 말이예요.
   구 : 스포-츠 라면 일반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운동은 대체로 조금씩은 다 하지요. 가령 야구라든가 수영 배구 농구등 조금씩은 다 합니다. 그리고 골프 같은것은 여기있는 김 문서국장을 제가 처음에는 가르쳤는데 요즘에 와서는 나보다 실력이 늘어서 입장이 거꾸로 바꾸어 졌읍니다만-- 그리고 오락은 무어든지 다 합니다. 당구 같은 것도 조금 하구요. 바둑 이나 장기 같은 것도 다소 합니다. 그리고 사냥은 좋아하는 편 입니다만 요즘 같아서는 사냥 갈 시간이 있어야지요.

5. 신 : 약주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구 : 젊었을 때는 많이 했지요.

6. 신 : 요즘에도 조금씩 하시지요?

구 : 요새도 조금씩은 합니다. 그러나, 원래 술이라면 여러가지로 실수가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폭주는 삼가 해야 할 문제 이기때문에 과음하는 일은 거의 없읍니다.

7. 신 : 공적관계로 열리는 연회 또는 파-티 같은 모임에 참석하신다든가 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일주일에 대개 몇번이나 되십니까?

구 : 해방후 공적 파-티가 상당히 많아졌지만 이러한 공적인 회합에 참석하는 날은 늦어도 열한시까지는 집으로 갑니다.

8. 신 :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게되는 날은 사모님에게 미리 연락하십니까?

구 : 하고 있읍니다.

9. 신 : 행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구 : 구백여명 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내에서 얼마나 가지면 생활을 할수있을까요?

10. 신 : 식구나름이겠지요

구 : 대개 가족을 평균 五、六명으로 기준한다면 한달에 얼마나 들까요?

11. 신 : 저는 六만원 가지면 되지않을가 생각합니다.
구 : 아마 그정도 가지면 되겠지요.

12. 신 :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구 : 또 오십시요.

40

QUESTIONS

1. 산업은행 총재가 누구입니까?
2. 신 양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3. 신양이 보통 무엇때문에 바쁩니까?
4. 구씨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5. 요새도 그분이 책을 많이 읽읍니까?

6. 구씨는 일간신문을 읽을 새가 있어요?
7. 구씨는 무슨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8. 구씨가 누구한테 골프를 가르쳐주었어요?
9. 요즘에도 계속 골프를 가르치고있읍니까?
10. 요새 구씨는 왜 사냥을 가지 못 합니까?

11. 한국에서사냥을가면 무엇을 잡을 수있어요?
12. 구씨는 언제 약주를 많이 했읍니까?
13. 술을 많이 하면 무슨 실수가 있읍니까?
14. 구씨는 왜 과음 하는 일이 거의 없을까요?
15. 해방후 공적 파-티가 적어졌읍니까?

16. 연회에 가면 대개 몇 시까지는 집에 돌아갑니까?
17. 언제 구씨가 사모님에게 연락한다고 했읍니까?
18. 산업은행 행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9. 요새 서울사람의 생활비가 얼마나 듭니까?
20. 도시에 사는 사람의 생활비가 시골보다 더 많이 들까요?

VOCABULARY

산업은행	産業銀行	Industrial Bank
총재	總裁	president
공연	公演	public performance
취미	趣味	hobby
독서	讀書	reading
원래	元來	originally
일간신문	日刊新聞	daily newspaper
셈		calculation, reckoning; equivalent to
오락	娛樂	recreation
일반적	一般的	general
가령	假令	if, in case
배구	排球	volleyball
문서국	文書局	department of archives
실력	実力	real ability
입장	立場	situation
거꾸로		the other way round, in reverse
당구	撞球	billiards
바둑		Korean checkers
장기		game of chess
다소	多少	some
사냥		hunting
약주		rice wines
실수	失手	mistake
삼가다		to be careful

과음	過飮	drinking too much
공적관계	公的関係	public relation
연회	宴会	dinner party
모임		gathering
참석	參席	attending
행원	行員	bank employee
기준	基準	standard

9 대 담

국방부장관 김장군 과 여류시인 모 여사

1. 김 : 이거, 모여사 께서 우리 국방부를 다 찾아주시니 웬일이십니까?

   모 : 글쎄, 일요대담을 부탁받아서 이렇게 찾아 뵈입게 되었군요.

2. 김 : 이리 좀 앉으시지요 .

   사진사 : 대담 광경을 찍겠읍니다. 장관님 좌석을 모여사 와 가까이 하시지요.

3. 모 : 아, 글쎄, 이런 어린 미남자 하고 같이 사진을 찍다가 바람이나 나면 어떻게 해요.

   김 : 도대체 나이 차가 얼마나 되기에 그러십니까?

4. 모 : 사실 따지고 보면 막내동생 벌 이지 뭐예요?

   김 : 아하 ----- 생일이 좀 며칠 빨른 정도 이실텐데 -----

5. 모 : 그런데, 김 장관께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KNA 여객기가 납북되어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데 한때 공군참모총장까지 지낸 김 장관님이 왜 여객기를 놓쳤어요?

   김 : 이 번일은 불의의 사고이며 또한사전에 괴뢰들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꾸며진 일 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6. 모 :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서 도로 잡아 올 도리를 강구해야지요.

김 : 그야 물론 찾아 오도록 적극 애쓰지요.

7. 모 : 이북에 가서 주은래 비행기라도 잡아 모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비행기로 가서 도로 끌고 모든지 해야지요. 군대의 사생활에 있어 별을 단 사람들은 아주 잘 산다고들 하더군요. 물론 장관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 이러한 박의 평이 사실 일까요?

김 : 물론 우리 나라 국방도 앞으로 개선 해야 할 점이 많이 있겠지요.

8. 모 : 판문점 회담에 몇번 가보았는데 우리 나라 사병과 신문기자는 이북관과 비해 볼때 귀족 같더군요. 그래서 기쁨을 느꼈읍니다만 ..... 그런데 우리 나라 군대의 기술면은 어떻습니까?

김 : 군사 기술면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았읍니다. 가령 포를 쓰는 기술이라 던지 기타 여러가지 군사 기술면에 실력은 이미 갖추어 졌읍니다.

9. 모 : 장관님은 골프를 아주 잘 하신다는데 .....

김 : 골푸는 한번 단단히 보지요.

10. 모 : 연애는 좀 안 하세요?

김 :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합니다.

11. 모 : 사모님은 싹싹하고 훌륭하신 분 이더군요. 그런데 우리 나라 고관들의 사모님은 못된 사모님이 많더군요.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도 장관이나 된것처럼 아주 못되게 구는 사모님이 많은데 김 장관님의 사모님은 이런분들과는 달라서 아주 겸손하시고 얌전하신 분 이예요.
김 장관님은 사모님을 잘 만나셨어요. 이런 부인을 두고 연애니 뭐니하고 바람이 나면 아마 장관님은 죄를 받을 거예요.
이와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김 : 또 오십시요. 그런데 언제 한번 집에 오십시오. 저의 와이푸가 대접을 잘 할것입니다.

QUESTIONS

1. 국방부장관이 누구입니까?
2. 모여사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3. 누가 두분의 대담광경을 찍었읍니까?
4. 모 여사가 왜 바람이 난다는 말을 했읍니까?
5. 두분의 나이차가 퍽 많습니까?

6. KNA여객기가 어데 납치되었읍니까?
7. KNA 여객기가 그후에 돌아왔읍니까?
8. 그 사건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어땠읍니까?
9. 그전에 누가 공군참모총장을 지냈읍니까?
10. KNA 여객기를 납치하기 위하여 괴뢰들이 무엇을 꾸몄어요?

11. 별을 단 사람이라면 계급이 무엇입니까?
12. 별을 단 사람에 대해서 박의 평이 어떻습니까?
13. 김장관이 무엇을 개선해야 하겠다고 했어요?
14. 누가 판문점 회담에 가보았읍니까?
15. 누가 왜 귀족같았을까요?

16. 국군의 기술면에 대해서 김장관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17. 장관이 무엇을 한 몫 단단히 본다고 했어요?
18. 장관이 요새 연애를 합니까?
19. 고관들의 사모님중에 왜 못 된 사모님이 많다고 했어요?
20. 김장관이 무엇을 하면 죄를 받겠다고 모 여사가 말 했어요?

VOCABULARY

여사	女史	madam
광경	光景	scene, spectacle
좌석	座席	seat
미남자	美男子	handsome man
바람이나다		to lead a loose life
따지다		to inquire into
벌		(kinship) standing
납북되다		to be kidnapped to the North
여론		public opinion
비등하다		to be aroused
참모총장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놓치다		to miss
불의	不意	suddenness; unexpected
사전에	事前	prior to ...
괴뢰		puppet
주도면밀		completeness, thoroughness
꾸미다		to fix up
도리	道理	reason
강구		seeking (measures)
적극		positive
주은래	周恩来	Chou En-lai
별		star
개선	改善	improvement
판문점회담	板門店会談	Panmunjom (truce) talks

귀족	貴族	nobles
기타	其他	the others
갖추다		to possess, equip, assort
한몫보다		to take part in
단단히		strongly, firmly
사모님	師母	Mrs.; teacher's wife
싹싹하다		to be sweet and gentle, affable
겸손하다		to be modest
얌전하다		to be gentle
대접하다	待接	to entertain

10 대 담

문교부장관 최씨와 무용가 조여사

1. 최 : 어서 오십시요. 막 외국인의 방문이 있어서 약속시간보다 좀 늦어진것 같습니다. 이리 앉으십쇼.

조 :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2. 최 : 조여사와 같은 분이 일부러 찾아오신다면야 언제든지 환영하겠읍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조여사를 부산서 뵙고 이번이 두번째 인것 같읍니다.

조 : 그럼 우선 장관님의 사생활부터 묻겠는데요. 결혼은 언제 하셨는지요? 그리고 자제들은 몇분이나 되는지요? 또한 결혼은 연애결혼 인지요?

3. 최 : 그러니까 올해가 꼭 결혼한지 삼십년째가 되는군요. 지금 육남매를 거느리고 있읍니다만 결혼은 연애.결혼이 아니라 그저 중매결혼이라 할까요. 그저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고 해서 꼴인했읍니다.

조 : 그러시면요 세평이 장관님은 대단히 가정에서 원만하시다고 하는데요 별다른 취미라든가 혹은 가족동반으로 영화라도 자주 가시는지요?

4. 최 : 무얼 이렇게 자꾸만 비행기를 태우십니까? 취미라면 독서밖에 없읍니다. 영화를 보는 시간이란 가끔 국무회의가 끝난후에 시사영화 라든가 혹은 어쩌다가 시간이 있어서 그야말로 가족동반하여 영화구경을 가는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별로 안가는 폭이예요.

조 : 그런데 장관님 유학생 문제로서 국가가 시급히 요청하고 있는 수학을 마친 학생들의 귀국조치에 대해서 당국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십쇼.

5. 최 : 유학생문제에 대해서는 요는 귀국하더라도 적합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읍니다. 여하튼 우리 유학생들의 해외에서의 성적이 대단히 우수하며 몇학생들은 한쪽으로 좋은 보수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읍니다. 내가 미국에 갔었을적에도 어떤 학생은 맥아더 장군이 중역으로 있던 모회사에 월급 천불이상의 사원으로 취직을 하고 있으며 그 학생 자신의 학위 획득을 위하여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것도 본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가 내가 믿기에는 돌아올 줄 믿고 종래까지 유학생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은 앞으로 해소 될줄 믿습니다.

조 다음 기회에 제가 장관님에게 저의 무용을 보여 드릴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하겠읍니다.

6. 최 대단히 고맙습니다.

QUESTIONS

1. 장관이 왜 약속시간보다 좀 늦게 조여사를 만났읍니까?
2. 문교부 장관이 그전에 조여사를 만난 일이 있읍니까?
3. 장관은 언제 결혼을 했읍니까?
4. 장관은 자제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5. 장관은 연애결혼을 했읍니까?

6. 장관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세평이 어떻습니까?
7. 장관이 왜 비행기를 태운다고 했어요?
8. 장관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9.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합니까?
10. 장관은 시사 영화를 볼 기회가 있읍니까?

11. 장관이 자주 가족 동반으로 영화관에 갑니까?
12. 한국 학생이 유학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13. 해외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14. 맥아더 장군은 한국에서 왜 유명합니까?
15. 맥아더 장군은 어느 회사의 중역으로 있었읍니까?

16. 그 회사에서 한국 학생이 무엇을 했어요?
17. 그 한국 학생은 일을 하면서 한편 무엇을 했읍니까?
18. 한국 유학생이 귀국하면 무엇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19. 맥아더 장군이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일이 있어요?
20. 조여사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VOCABULARY

문교부	文敎部	the Ministry of Education
무용가	舞踊家	dancer
약속	約束	promise
환영	歡迎	welcome
사생활	私生活	private life
자제	子弟	children
꼴인하다		to achieve the goal
세평	世評	public opinion
원만하다	円滿	to be harmonious, amicable
별다른		particular, different
가족동반	家族同伴	with one's family
비행기를태우다	飛行機	to flatter
국무회의	國務会議	Cabinet Council
시사영화	試寫映画	movie preview
폭		approximating, about
시급히		urgently
요청하다	要請	to request
수학	修学	study, schooling
귀국	歸國	returning to one's country
조치	措置	management, disposition
당국	當局	the authorities
견해	見解	view
적합하다	適合	to be suitable
일자리		job, position (for employment)

마련하다		to plan, arrange
성적	成績	grade (for achievement)
우수하다		to be excellent
보수	報酬	recompense
중역	重役	director (of a company)
모	某	so-and-so (person)
이상	以上	more than
사원	社員	employee (of a company)
학위		academic degree
획득		acquirement
종래	從来	up to now
폐단		abuse; shortcoming
해소	解消	dissolution
영광	榮光	honor, glory

Children learn the ancient dances at an early age.

11 생포된 유격대원 --- 기자와 일문일답

1. 문 : 이름、나이、소속、계급은?

   답 : 김신조、27세(42년 4월 2일생) 인민군 제124군부대、소위.

2. 문 : 가족관계는?

   답 : 성진시 청암동 3반에 부친 김중엽(56)과 모친 이분옥(55) 세누이 동생이 살고있다. 부모는 성진 직조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3. 문 : 인민군 제124군부대란?

   답 : 황해도 연산에 있으며 남쪽에 보낼 유격대원 二천四백명을 훈련하고 있다. 七개 기지에서 三백여명씩 훈련을 받고 있다.

4. 문 : 언제 떠났는가?

   답 : 지난 16일 하오2시 동지 31명이 함께 떠났다.

5. 문 : 어디를 지나서 왔는가?

   답 : 16일 밤12시 개성에 도착、다음날 매현리에 있는 인민군 초소를 통과、비무장지대에 들어섰다. 군사분계선(휴전선)을 넘은것은 17일 밤10시쯤、그날밤은 비무장지대안 숲속에서 잤다. 미제2사단지역인 석포부근이었다.

6. 문 : 미군지역의 휴전선 방책을 어떻게 지났는가?

   답 : 18일 방책을 가위로 자르고 통과했다. 임진강은 얼음판

이어서 쉽게 건널수 있었으며 그날밤은 법원리 부근 미타산에서 새웠다.

7. 문 : 나무꾼을 만났다는데 -------
답 : 19일 하오 2시 반께 미타산에서 나무꾼을 만났다. 절대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을 말라고 협박했다.

8. 문 : 어떤 무장을 했는가?
답 : 각자가 기관단총 1정, 권총 1자루, 수류탄 8개, 대전차지뢰 1개와 총검, 나침판 등을 소지, 국군복장을 하고 왔다.

9. 문 : 법원리에서 서울까지는 어떻게 왔는가?
답 : 앵무봉, 노고산, 비봉을 지나 산을 타고 세검정까지 들어왔다 아무 저항도 받지 않았다. 만난 사람도 없다. 19日 밤은 비봉 아래에서 20日 밤은 비봉 꼭대기에서 잤다. 20일밤 10시께 세검정에 도착 경찰과 충돌했다.

10. 문 : 그동안 행군 속도는?
답 : 첫날엔 한시간에 10 킬로를 걸었으나 차츰 속도가 떨어졌다.

11. 문 : 어떤 임무를 띠고 서울까지 왔는가?
답 : 청와대를 습격, 폭파하여 朴 대통령과 간부를 죽이려고 했다.

12. 문 : 청와대 습격 계획을 말하라.

답 : 우리 31명은 기본조 5개조와 윤전조등 6개조로 편성돼있었다. 21日밤 10시에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다.
제5조가 청와대 정문 보초를 없애면 1~4조가 청와대 안으로 돌입, 1조는 본관 2층을, 2조는 본관1층을, 3조는 경호실을, 4조는 비서실등 부속건물을 습격 목파할 계획이었다.

13. 문 : 철수계획은 ?
답 : 행동후에 윤전조가 청와대 수송부에서 드리쿼터를 탈취 문산으로 달아날 계획이었다.

14. 문 : 실패할때는 어찌 하려고 했나 ?
답 : 실패하리라 생각 안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왔다.

15. 문 : 청와대까지 쉽게 갈수있을것이라 생각했는가 ?
답 : 일사천리로 갈수있을것이라고 생각했었다.

16. 문 : 이북에선 전쟁준비를 어느정도 하고있는가 ?
답 : 내생각으론 완전히 전쟁준비가 돼있다. 모든 직장의 노동자는 24시간 내에 완전무장하고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곳곳에 진지와 동굴을 파놨다. 그리고 비상식량의 비축도 끝났다. 그뿐 아니다. 통일후에 대비(남한의) 각도별로 행정책임자를 선출, 훈련을 끝냈다. 각도에 이북출신 二명, 남한출신 一명의 책임자를 선발한것이다.

17. 문 : 이번 청와대를 습격후 구체적인 철수계획은 없었는가 ? 다시 말해서 제一집결지, 제二집결지 같은것은 없었는가 ?

답 : 없었다.

18. 문 : 제124군 부대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

답 : 작년 7월에 입대하여 유술、격술、전투훈련을 받았다.
남파직전엔 15일동안 서울 청와대와 유사한 모의지형에서
습격훈련을 받았다.

19. 문 : 북괴는 제124군 부대의 훈련된 유격대를 계속 서울로
보낼 계획이던가?

답 : 나로서는 잘 알수없다.

20. 문 : 지금 심정을 ?

답 : 여러사람에게 죄를 졌다.

QUESTIONS

1. 포로 김 신조의 소속부대가 무엇입니까?
2. 김의 계급과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3. 김의 부모는 어데서 무엇을하고있어요?
4. 인민국 제一二四군부대에서는무슨훈련을하고있읍니까?
5. 김은 동지 몇명과 함께 남하했읍니까?

6. 김은 언제 비무장지대에 들어섰읍니까?
7. 김은 언제 휴전선을 넘었읍니까?
8. 휴전선 방책을 어떻게 통과했읍니까?
9. 나무꾼을 어떻게 협박했읍니까?
10. 김하고 그의 동지는 어떤 부장을 했읍니까?

11. 포로의 행군 속도는 어땠읍니까?
12. 김의 임무는 무엇이었읍니까?
13. 언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어요?
14. 김에 의하면 청와대습격 계획이 어땠읍니까?
15. 김은 무엇으로 달아날 계획이었어요?

16. 김은 계획이 성공할줄 알았어요?
17. 이북에서는 전쟁준비를 어떻게 하고있지요?
18. 이북에서는 통일후에 대비하여 무슨훈련을 끝냈어요?
19. 김은 제一二四군부대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20. 김은 지금심정이 어떻다고 말 했어요?

VOCABULARY

생포하다	生捕	to capture (alive)
유격대	遊擊隊	guerrilla unit
기자	記者	reporter
일문일답	一問一答	question-and-answer
소속	所屬	belongings; attached, belonging to
가족관계	家族関係	family relationship
직조공장	織造工場	textile mill
군사분계선	軍事分界線	military demarcation line
휴전선	休戰線	truce line
비무장지대	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
방책	防柵	palisade, stockade
통과	通過	passage, passing
얼음판		icy ground
나무꾼		woodsman, woodcutter
협박하다	脅迫	to threaten
각자	各自	each one (person)
기관단총	機関短銃	submachine gun
저항	抵抗	resistance
꼭대기		top, summit
충돌	衝突	collision
청와대	青瓦台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습격하다		to raid
폭파	爆破	explosion, blowing up
대통령	大統領	the President

간부	幹部	governing body, cadre, managing staff
조	組	group
편성	編成	formation, organization
정문	正門	main entrance
없애다		to get rid of
돌입	突入	inrush, plunging in
본관	本館	main building
경호실		guard room
비서실	秘書室	secretariat
부속건물		annex building
철수		evacuation
행동	行動	action
세검정		(name of a pavillion)
탈취		capture, seizure
실패	失敗	failure
죽음		death
각오		understanding, readiness (mental)
일사천리	一瀉千里	in a great rush
이북	以北	North Korea
직장	職場	one's place of work
완전무장	完全武裝	complete armament
출동	出動	mobilization, moving out
동굴	洞窟	cave
비상식량	非常食糧	emergency food
비축	備蓄	provisions
통일	統一	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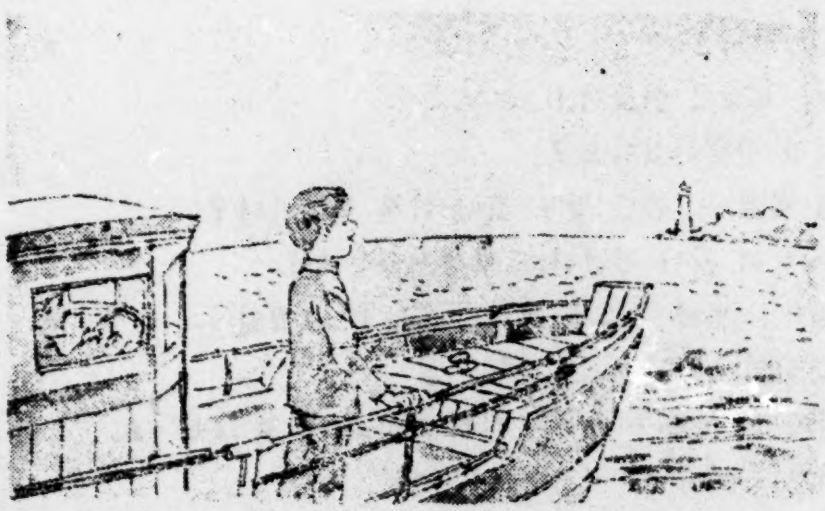
대비	對備	preparedness
행정책임자	行政責任者	administratively responsible person
선출	選出	election
선발		selection
구체적	具体的	concrete (not abstract)
유술	柔術	judo
직전	直前	right before
유사하다	類似	to be similar
모의지형	模擬地形	modeling topography
심정	心情	one's feelings

〈시나리오〉

Unit 12

등 대

金 勝 珪



① 타이틀백 F·I

바다 위. 멀리 바라다보이는 외딴섬 위에 솟아 있는 등대로 발동선 한 척이 다가간다. 뱃머리에 서서 등대를 바라다보며 미소를 짓는 효섭의 얼굴이 보인다.

——타이틀이 끝난다.——

② 등대가 서 있는 섬

과도가 몰려드는 바위 위에 서서 한 손에 트렁크를 든 채

떠나가는 발동선을 향해 손을 흔들고 돌아서는 효섭.

③ 등대의 뜰

열심히 닭에게 모이를 주던 김 노인이 달려 들어온 효섭을 보고 놀라 일어선다.

효 섭: 할아버지!

김노인: 너, 효섭이 아니냐!

효 섭: 그간 안녕하셨어요?

김노인: 이 녀석아, 온단 말도 없이 이게 웬일이냐?

효 섭: 추석 때 찾아 뵙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노인: 옳아! 벌써 그렇게 됐군. 옳아! 그랬었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효 섭: 할아버지도…… 편지를 미리 드리고 올 걸 그랬어요.

김노인: 아니다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

김 노인이 효섭의 등을 어루만지며 방안으로 들어간다.

④ 방 안

김 노인과 효섭이 마주 앉아 있다.

김노인: 그래, 어머니와 동생들도 다 잘 있느냐?

효 섭: 예.

김노인: 어머니 혼자 너희를 기르느라고 고생이 많을 텐데…

효 섭: 어머니가, 차려 놓으신 가게가 제법 잘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젠 할아버지께서 저희의 학비를 염려하

김 노인 : 기특한 일이다.

효　섭 : 모두 할아버지 덕택이라는 말씀 여쭈라고 하셨어요.

김 노인 : 내가 한 게 있어야지. 그러나 저러나 네 아버지 성묘를 해야지.

효　섭 : 예.

⑤ 아담하게 단장된 무덤

'김 영식의 묘'라고 새겨진 비문이 보인다.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서 있는 효섭과 김 노인.

김 노인 : 이제 그만 내려가자.

⑥ 다시 방안. 밤

나란히 깔린 두 이부자리에 김 노인과 함께 생각에 잠긴 효섭이 누워 있다.

효　섭 : 할아버지.

김 노인 : 아직 잠들지 않았었구나.

효　섭 : 아버지 말씀인데……

김 노인 : (일어나 앉으며) 말해 보아라.

효　섭 : (역시 일어나 앉고) 제가 어렸을 때 일이 돼서 잘 기억은 못 하겠읍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슬피 우시던 일이 머리에 떠오르곤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여쭤 봤는데,

말씀은 안 해 주시고 슬퍼만 하셨어요.

김 노인 :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자식으로서 어버이의 작고한 연유를 알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병사를 했든, 불행히 횡사를 했든, 그야 문제가 아니지.

효 섭 : 그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노인 : 오늘, 그 동안 성장한 네 모습을 보고 젊었을 때의 네 아버지를 대한 듯했다. 자라는 너희에게 가슴 아픈 말을 삼가느라고 숨선 왔다만, 지금 네가 물으면 그 말을 해 줘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효 섭 : 아버지는 병사하신 게 아니었읍니까?

김 노인 :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그렇다.

효 섭 : 그럼?

김 노인 :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 일이다. 네가 넉 살 때지. 양민을 세 사람이나 학살하고 정찰에 몰리던 간첩 두 명이 어느 착한 어부를 위협하여 노를 젓게 하고는 이 등대로 왔었단다.

효 섭 : 등대에는 뭣 하러 왔었나요?

김 노인 : 사오•명이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배로 이북까지는 갈 수 없어 곰곰 생각하다가, 마침 등대가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리로 와서 저희 패거리들에게 배를 가져오도록 연락하려던 것이지.

효 섭 : 그렇군요. 무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첩들이 아버지를……

김 노인 :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그날 밤, 섬이 온통 고이 잠들

었을 때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이리로 다가오고 있었다.
(O·L)

⑦ 다시 등대가 서 있는 섬. 밤

과도가 몰려드는 바위 위에 간첩과 강 민호가 서 있고, 그들 앞에 울상이 되어 손을 합장하다시피한 사공 한 사람이 배 위에 발을 디딘 채 있다.

간 첩: 어서 내리지 못해?

사 공: 처자가 있는 몸입니다. 제발 보내 주시죠.

간 첩: 이 양반이…… 걱정 말고 이리 오란 말야!

사 공: 여기까지 모셔다 드리면 보내 준다고 하시잖았읍니까? 늙으신 부모님께서도 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간 첩: 정말 이러기요?

사 공: 어린 것도 아파 누워 있읍니다.

그러는 동안 배가 파도에 흔들려 바위에서 멀어져 간다.

간 첩: 노를 저어 배를 이리 대지 못해?
사 공: 제발…… 좀 사정을 살펴 주시죠.
간 첩: 안 되겠군!

간첩이 돌연 권총을 괴춤에서 꺼내 든다.

사 공: (겁에 질려) 제발 그러지 마시죠! 이제 배를 갖다 대겠읍니다!

간첩이 든 권총이 불을 뿜자, 총소리가 진동하고 사공은 가슴을 움켜 쥔 채 바닷물 속으로 쓰러져 간다.

⑧ 다시 빙안. 밤

네 살 난 효섭과 그의 누이동생을 사이에 두고 누워 있던 김 영식과 그 부인이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다.

김 영식: 여보! 당신도 들었소?
부 인: 예.

⑨ 대청. 밤

안방과 건넌방에서 나온 김 노인과 김 영식이 마주 선다.

김 영식: 일어나셨읍니까?

김 노인 : 그래. 웬 총소리냐?

김 영식 : 그래서, 저도 일어났읍니다만.

김 노인 : 나가서 등대나 한 바퀴 돌아 보자.

김 영식 : 예.

⑩ 등대 바깥

권총을 손에 든 채 은신하고 서 있던 간첩과 강 민호가 모퉁이를 돌아서는 김 노인과 김 영식 앞을 막아 선다.

김 노인 : 누구요?

간 첩 : 아무 소리 말고 등대 안으로 들어가쇼!

김 영식 : 뭣 하는 분들이십니까?

⑪ 다시 방안. 밤

간첩에게 떠밀려 들어온 김 노인과 김 영식이 강 민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김 영식 : (강 민호에게) 아니, 자네 민호 아닌가?

김 노인 : 아니!

간 첩 : (강 민호에게 김 영식을 가리키며) 바로 이 사람이 동무의 친구라는 사람이오?

강 민호 : (김 영식에게) 나 민호일세.

김 영식 : 그럼 4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이 됐다더니 이북으로 갔었나?

간 첩 : (강 민호에게) 그 동안이라도 세뇌를 잘 하시오.

강 민호 : (김 영식에게) 자넨 나한테 빚이 있지. 그 빚을 받으

러 왔네.

간첩은 휴대용 무전기로 뭣인가 열심히 타전하고 있다.

김 노인 : 빚이라니 ?

강 민호 : (김 영식을 가리키며 김 노인에게) 잘 알고 있잖습니까 ?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벌써 7년 전에 조기잡이 나갔을 때 죽었을 사람이죠. 발동선이 좌초되어 깨어져서 기절한 걸 여섯 시간이나 업고 바다를 헤매다 살려 놨으니까요.

김 노인 : 그 얘기라면 알고 있네.

김 영식 :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나 ? 자네가 바라는 것이 뭣인지 말해 보게.

강 민호 : 너무 서두르지 말게. 오래잖아 자네 협조가 내 목숨을 좌우하게 될 테니까.

⑫ 건넌방. 밤

긴장한 표정을 지은 김 노인과 김 영식, 그리고 잠이 든 효섭을 안은 그의 어머니가 묵묵히 모여 앉아 있다.

김 노인 : (소리를 죽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어젯밤 방송에서 말하던 그 간첩이 아니냐 ?

김 영식 :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부 인 : 에 ? 아니 그럼……

⑬ 다시 안방. 밤

간첩이 휴대용 무전기로 뭣인지 열심히 타전을 하고 있다가 화가 치민 듯 무전기를 밀어 버린다.

간 첩: 망할! 회신이 와야지!

강민호: 기계엔 고장이 없소?

간 첩: 내 실력을 못 믿겠소?

강민호: 그런 건 아니지만 야단이군. 워낙 경찰이나 방첩 당국의 신경을 필요 이상 건드려 놔서 우리가 있는 위치가 불안하단 말요. 이건 모두 육지에서 저지른 동무의 지나친 난동 때문이오.

간 첩: 난동이라뇨!

강민호: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시골 젊은이나 그 아내와 어린 자식을 죽이잖아도 되잖았소. 우리를 여기까지 실어다 준 사공도 그렇지만 말이오.

간 첩: 그건 우리의 행방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오. 살려 둔 채 입을 봉할 순 없는 일 아뇨! 난 무자비한 영웅적 투쟁을 실행했을 뿐이오!

강민호: 젖먹이 어린애까지 무자비한 투쟁의 대상이 돼야 하오?

간 첩: 강 동무! 난 남한으로 파견된 이래 동무의 사상성을 의심하잖을 수 없었소! 역시 내가 염려했던 대로란 말이오.

강민호: 그건 무슨 말이오.

간 첩: 아편을 한동안 끊었던 사람이 다시 중독 환자가 되는 게 보통인 것처럼, 동무는 소위 자유라는 아편 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요. 그런 퇴폐적인 사고는 우리의 투쟁적 정신을 녹슬게 하는 독소요!

강민호 : (목까지 치밀어 오른 말을 삼키고 밖으로 나가며) 생각해 보리다.

간 첩 : 어딜 가오!

강민호 : 바람 좀 쐬겠소.

⑭ 바닷가 벼랑 위. 밤 5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 밑 바위 위에 김 영식과 강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다.

김영식 : 자네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못 믿을 일일세. 바로 이 자리에서 밤을 구워 먹던 생각이 나나?

강민호 : 나고말고. 그때, 자네 동생 복순이가 밤송이를 까 주다가 손에 가시가 박이잖았었나? 그게 바로 어제 일 같군.

김영식 : (회상에 잠기어) 그때, 복순이 손등의 가시를 자네가 빼 줬지. 저편, 부채바위에서 고기를 낚던 일 기억하나? 썰물이 되면 바구니를 들고 나가 소라와 조개를 주워다 반찬을 해서 먹었지.

강민호 : (두 줄기의 눈물이 흐른다.) 그랬었지.

김영식 : 자네가 오잖으면 내가 자네 집엘 가던 사이였는데, 지금의 자네는 달라진 것 같아.

강민호 : 내가 달라진 건 이미 자네와의 내왕이 끊어진 그때부터였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자 자포자기가 되었었지.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았던 걸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의 생활은 타락되고……

내 추억 속에 아름답게 간직했던 자네 누이동생마저 세상을 떠나잖았나? 난 고아 아닌 고아가 됐었네. 그래서, 그날 그날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자는 것이었지. 그보다 사라져 버린 이상이 남겨 준 상처의 아픔을 잊어버리자는 것이었을 거야. 그래서 배를 탔지. 그런데, 그 배가 납북됐던 걸세. 어떤 변화를 구하던 심정이 나를 이북에 머물러 있게 했던 것일세. 그러나, 그건 큰 잘못이었다는 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네. 정말 자유를 마음껏 호흡할 줄 알던 사람이 스스로의 심장과 폐에 공산주의식 정형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해 왔네. 정말 이런 평화…… 이런 평화를 살아 있는 동안 다시는 누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네.

강 민호가 일어서서 크게 한숨을 내뿜는다.

김 영식: (일어서서) 지금이라도 늦잖았어.

강 민호: 무슨 소린가?

김 영식: 자수를 하게.

강 민호: 자수? 웃기지 말게. 나와 동행인 저 자가 남한의 무고한 백성을 몇 명이나 희생시켰는지 아나? 그런 저 자 대신 내가 그 죄값을 치르란 말인가?

김 영식: 자네가 하잖은 일을 자네에게 책임지울 리도 없고, 자수한 후의 갱생도 보장해 주지 않나!

강 민호: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의미를 알게 됐네. 그러나, 나처럼 범속한 사람은 가버운 목숨에 더 많은 미련

이 있는 걸세. 어리석게 속아서 죽고 싶진 않아.

김 영식 : 지난날의 자네로 돌이켜보려고 했네만, 역시 그런 점이 달라졌군 그래. 옛 친구인 나를 믿듯이, 나와 같은 우리 정부의 방침을 믿지 못하겠나? 믿어 보게. 자네는 결코 달라질 수 없네. 타고난 인간의 성품이 그릇된 환경에 의해 아주 변질될 수는 없는 걸세. 옛날의 선량한 자네로 돌아갈 수 없겠나?

강 민호 : (긴 한숨과 함께) 그러기엔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됐네.

⑮ 다시 등대가 바라다보이는 바다 위

멎멎 무장한 경관을 태운 경비정이 파도를 헤치며 다가온다.

⑯ 다시 방안

어리둥절해 있는 효섭을 안은 간첩과 강 민호 앞에 긴장된 김 영식이 서 있다.

간　첩 : (김 영식에게) 아들과 건넌방에 갇힌 가족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경찰관을 들려 보내야 한단 말야!

⑰ 다시 등대의 뜰

강 민호가 착잡한 표정을 지은 김 영식을 뒤따라 나온다. 이때, 먼 데서 경비정의 경적 소리가 들려 온다.

강민호 : 실수 없도록 해야 하네.

김영식 : 나더러 조국을 배반하고 이적 행위를 하란 말인가?

강민호 : 놈은 흉악무도한 놈일세. 만일의 경우엔 어떤 일을 할지 모르네.

김영식 : 그럼, 자네는 그 흉악무도한 놈의 동지인가?

강민호 : 내가? 그렇지. 현재는 그렇지.

김영식 : '현재는'이라니?

강민호 : 현재는 말일세.

김영식 : (말의 뜻을 짐작한 듯 뭣인지 새로운 결심의 빛이 얼굴에 서린다.) 그럼, 다녀오겠네.

⑱ 파도가 몰려드는 바위

바위 위에서, 옆에 닿은 경비정을 바라보고 서 있는 김 영식.

경　위 : (김 영식에게)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읍니다. 박 경사!

경　사 : 예!

경　위 : 두 사람을 인솔하고 잠복해 주게. 그리고, 여기 계

시는 김 선생의 신호를 기다려 행동해 주게.

경　사: 예!

경비정에서 뛰어내린 경사와 두 순경이 바다 모퉁이에 은신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 버리는 경비정.

⑱ 다시 방안 5

여전히 간첩은 효섭을 안고 있다.

간　첩: (기괴한 웃음을 짓고) 그래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돌려 보냈단 말야?

김영식: 물론이오.

간　첩: 날 바보로 아느냐? 경비정이 사라진 방향을 봤단 말야. 경비정은 본부로 곧장 돌아갔거든. 우리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면 딴 등대로 가야 할 것이지, 왜 본부로 곧장 돌아갔느냐 말이다! 다섯을 셀 때까지 사실을 고백하잖으면 네가 보는 데서 이 아들놈의 머리에 총알을 쏴 박을 테다! 하나! 둘! 셋!

강민호: 잠깐만!

간　첩: (강 민호에게) 어쩌자는 거요?

김 영식이 비호처럼 달려들어 간첩의 권총을 붙든 순간 그 총에 맞아, 고통으로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다. 그러나, 그의 단말마적인 손이 권총을 놓아 주지 않는다.

(O·L)

㉘ 다시 방안. 밤

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효섭의 눈에 눈물이 핀다.

김노인 : (긴 한숨을 몰아 쉬고) 이렇게 해서 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친구라는 그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간첩을 때려 눕히고 자수를 했지. 지금까지 너의 학비를 대고 나를 도와 준 이가 바로 그분이야. 지금은 대전에서 잘살고 있어.

효 섭 :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제가 행복해요.

효섭이 흐느끼며 머리를 조아리자, 김 노인의 손이 그의 등을 어루만진다.

(F·O)

QUESTIONS

1. 김노인은 왜 효섭을 보고 놀라 일어섰읍니까?
2. 효섭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읍니까?
3. 효섭의 아버지는 언제 세상을 떠났읍니까?
4. 경찰에 몰리던 간첩 두명이 무엇하러 이 등대로 왔읍니까?
5. 사공이 왜 내리지 않겠다고 처음에 말했읍니까?

6. 간첩이 돌연 권총을 꺼내들고 무엇을 했읍니까?
7. 김영식의 식구는 누구 누구이었읍니까?
8. 총소리를 듣고 누가 일어났읍니까?
9. 세뇌라는 말은 언제 흔히 쓰는 말입니까?
10. 김 영식은 강 민호한테 무슨 빚이 있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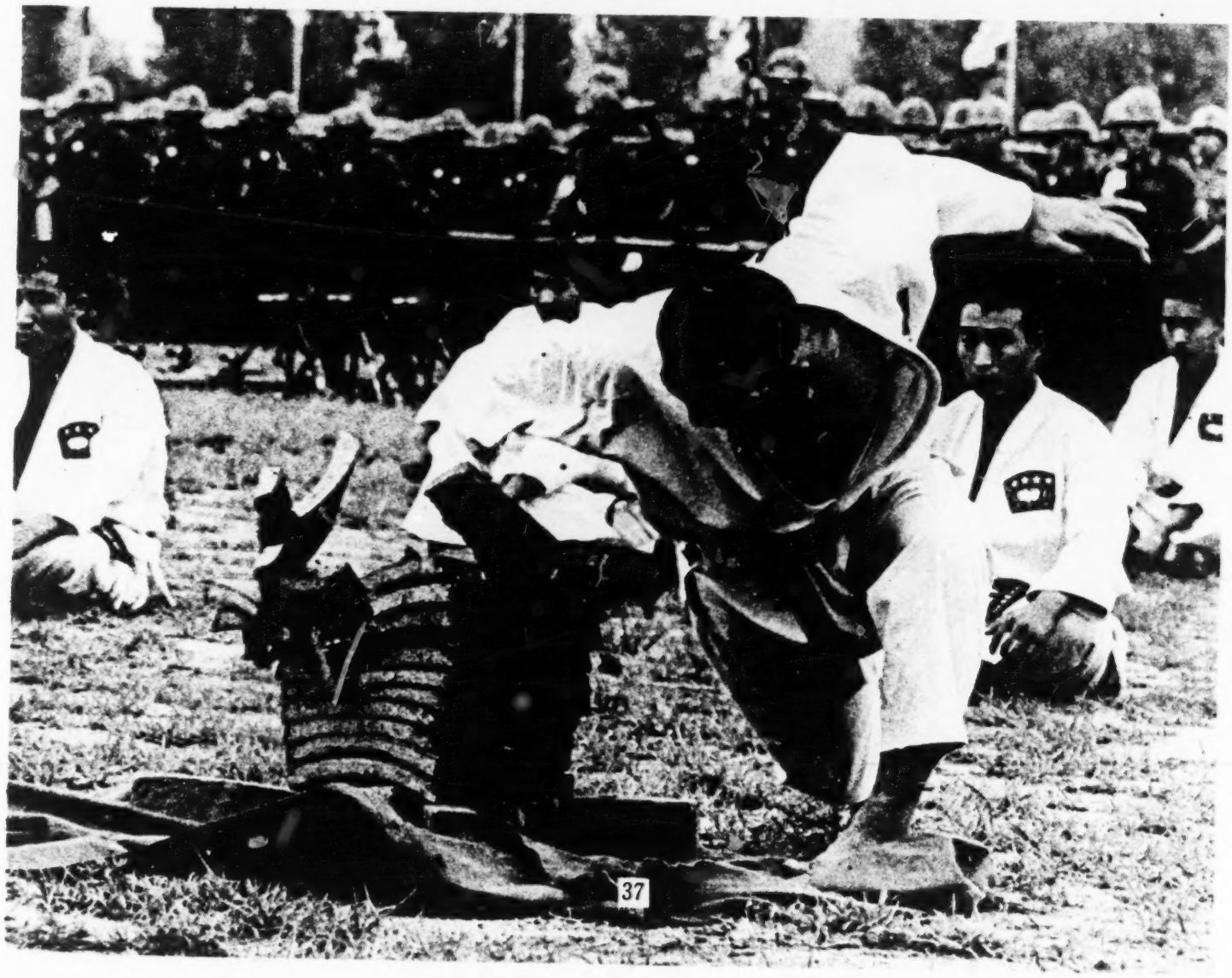
11. 간첩이 휴대용무전기로 무엇을 타전했읍니까?
12. 강 민호는 왜 자기의 현재 위치가 불안하다고 말했을까요?
13. 간첩은 어떠한 난동을 했읍니까?
14. 간첩이 강 민호의 사상성을 왜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15. 왜 자유를 아편중독이라고 간첩이 말했읍니까?

16. 김 영식 누이 동생하고 강 민호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어요?
17. 무슨 원인으로 강민호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어요?
18. 김 영식은 어떻게 횡사했읍니까?
19. 누가 효섭의 학비를 도와주었어요?
20. 그 분이 지금 어데서 살고 있지요?

VOCABULARY

등대	燈台	lighthouse
발동선	發動船	motor-boat
추석	秋夕	the Harvest Moon Festival
성묘	省墓	visiting one's ancestral graves
작고하다	作故	to decease
연유	緣由	reason
횡사	橫死	violent death
양민	良民	good people
사공	沙工	boatman
실종	失踪	missing, disappearance
세뇌	洗腦	brainwashing
좌초	坐礁	stranding, running aground
방첩	防諜	anti-espionage
무자비하다	無慈悲	to be merciless
아편	阿片	opium
고기를 낚다		to catch fish
썰물		low tide
소라		top shell
자포자기	自暴自棄	self-abandonment
자수	自首	self-surrender
갱생	更生	revival
이적행위	利敵行爲	acts benefiting the enemy
흉악	凶惡	wicked, atrocious
동지	同志	comrades
잠복		hiding

Soldiers of the 26th ROK Army Division stay at the peak of combat readiness with vigorous physical training, including Tae-kwon-do, a traditional Korean fighting art.



Unit 13

까마귀의 생활

까마귀는 우리가 사는 둘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슬기로운 날짐승이다.

까마귀들은, 생활해 가려면 조직이 重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처럼 훈련이 되어 있다.

까마귀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自己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여, 살림을 이어 가고, 生命의 안전을 꾀하기에 서로 힘쓴다.

까마귀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우두머리가 있다. 이 우두머리는 그 모임에서 다만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슬기롭고, 가장 용감하여, 그들을 끌고 나갈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까분다거나 우두머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놈은, 주먹으로 꽉 눌러 따르게 할 실력이 있어야 우두머리가 될 수

나는 여기서, 까마귀의 우두머리인 '은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은별'은 눈 밑에 동그란 흰 점이 있어서 마치 은빛 별 같기 때문에 내가 붙인 이름이다.

이 '은별'이 거느리는 까마귀 떼는 약 二百(이백) 마리인데, 그 수효가 느는 일은 결코 없었다. 왜 수효가 늘지 않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으나, 아마 거느리기가 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까마귀 떼는 철에 따라 사는 고장을 바꾼다. 나는 해마다 三, 四月(사월)의 봄철과, 늦여름부터 가을까지의 두 차례에 걸쳐, 이 고장에 와서 사는 '은별' 까마귀 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말로는, 이 '은별' 까마귀는, 二十年(이십년)이나 이 고장에 부하를 이끌고 와서 살림을 차린다고 한다. 나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날짐승을 구별할 줄 아는가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것은 눈 밑의 흰 점 때문임을 알았다. 나는 이 늙은 까마귀를 '은별 영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까마귀 떼는, 우리가 사는 마을의 언덕 위에 살림을 차리면, 날마다 세 부대로 갈라져서 식량을 모으러 간다.

'은별'은 중대장이고, 부대마다 소대장이 있는 셈이다. 그 中의 한 소대는 마을 앞을 흐르는 江 北(북)쪽으로 가고, 한 소대는 강 南쪽으로 간다. 한 소대는 '은별 영감'이 직접 거느

리고 山골짜기를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부대의 수효가 가장 많다.

나는 골짜기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활동과, 우두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들을 수가 있었다. 나는 까마귀를 관찰하는 동안, 이 조그만 날짐승의 커다란 지혜를 알았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알았으며, 단체 생활의 규칙도 알 수가 있었다.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나는 골짜기에 있는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마침 '은별 영감'이 부하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五百(오백) 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은별 영감'의 명령은 내려졌다. 사람의 말로는 "좋아, 빨리 따라와." 하는 뜻으로 "까악 까악" 한다. 그러면, 곧 부관이 따라오는 동무들에게 다들리도록 "까악 까악" 하며 되풀이한다.

까마귀 떼는 센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나지막하게 날고 있었으나, 내가 서 있는 다리를 넘기 위하여 조금 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 때, '은별 영감'은 내가 自己(자기)들을 지켜 보고 있는 것을 보자, 경계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속력을 줄이며 "조심해라." 하여, 한 번 "까악" 하더니,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총을 안 가진 것을 안 다음, 약 十 미터의 높이로 내려와 날아갔다. 다른 까마귀들도 '은별 영감'이 하는 대로 선을 그리며 따라갔다.

다음 날, 나는 똑같은 자리에서 그들이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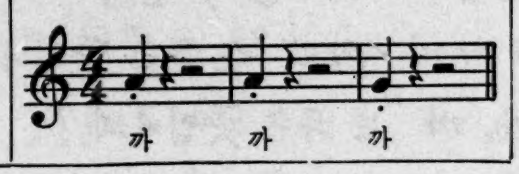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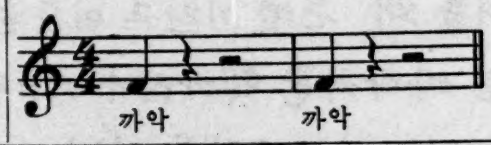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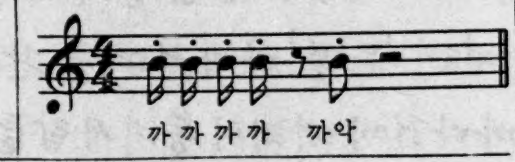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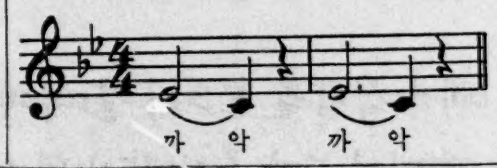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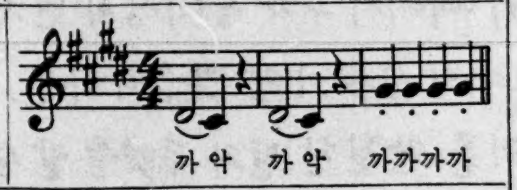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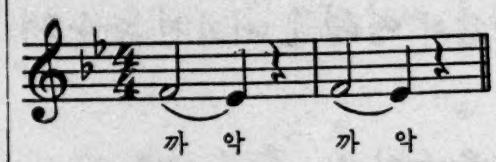
는 것을 보고 있다가, 지팡이를 쳐들어 그들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자, '은별 영감'은 곧 "위험하다" 하여, "깍" 하고 二十 미터나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이 총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다시 十 미터 높이로 내려왔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총을 가지고 나갔다. '은별 영감'은 내 총을 보자마자, "위험하다. 총이다." 하여 "까까까까 까악" 하고 소리쳤다. 부관이 다시 되풀이하자, 까마귀들은 총알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이 올라, 멀리 맴을 돈 다음, 다시 골짜기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때, 매 한 마리가 까마귀 떼가 가려는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은별 영감'은, 곧 "매다, 매다." 하여, "까악 까악" 하고 부르짖었다.

그 밖에도, 나는 '은별 영감'의 여러 가지 명령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아주 조그만 소리의 차이가 매우 다른 뜻을 나타내

는 것도 알았다. 그 소리와 뜻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뜻	울음 소리
좋아. 빨리 따라와.	
위험하다. 총이다.	
매다, 매다.	
뒤로 물러가.	
잘 있었나? (人事말)	
차려	

QUESTIONS

1. 까마귀는 어떠한 날짐승입니까?
2. 까마귀들은 무엇 때문에 군대처럼 훈련이 되어 있어요?
3. 까마귀들은 무엇을 꾀하기에 서로 힘씁니까?
4. 까마귀들의 우두머리는 누가 됩니까?
5. 우두머리는 어떠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까?

6. 우두머리를 왜 '은별'이라고 이름을 붙였읍니까?
7. '은별'은 까마귀를 몇마리나 거느립니까?
8. 까마귀 떼는 사는 고장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까?
9. 필자는 언제 '은별'까마귀 떼를 관찰했읍니까?
10. '은별'까마귀에 대해서 동네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11. 까마귀 떼가 식량을 모으러 갈때에는 어떻게 갑니까?
12. 까마귀 떼에서 누가 중대장이 된셈입니까?
13. 어느 소대의 수가 가장 많습니까?
14. 까마귀를 관찰한 결과 무엇을 알수가 있었어요?
15. 은별 영감이 명령을 내리면 누가 왜 되풀이 합니까?

16. 어떤 울음소리가 "좋아, 빨리 따라와."라는 뜻 입니까?
17. "까까까까 까악"은 무슨 뜻입니까?
18. "까 까 까"는 무슨 뜻입니까?
19. 뒤로 물러가라고 할때는 어떤 울음 소리를 냅니까?
20. 은별 영감은 무엇을 보면 경계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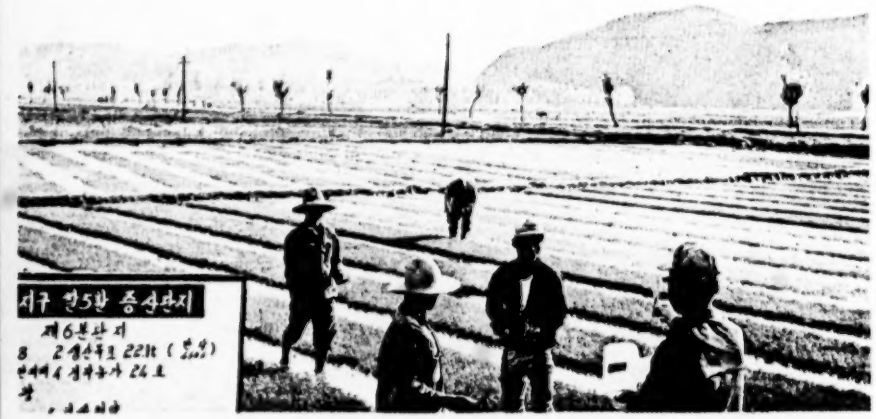
VOCABULARY

까마귀		crow
둘레		circumference
슬기롭다		to be intelligent
날짐승		birds
조직		organization
자기	自己	oneself
충실하다		to be faithful
생명	生命	life
꾀하다		to plan, scheme
우두머리		boss, chief
모임		gathering
용감하다		to be brave
까불다		to behave flippantly
주먹		fist
끝내		to the end
거느리다		to command
떼		group
고장		place
관찰하다		to observe
이끌다		to lead
식량		food, foodstuffs
되풀이		doing over again
매		falcon
시늉		mimicry
맴		spinning oneself round

⇩농가의 부업을 장려하는 농촌 진흥청은 양송이 재배도 지도한다

⇧농촌지도사업 중에는 가계, 식생활개선 등 부녀자들에 대한 생활개선지도도 있다

⇩농민들에 대한 지도로 이론 이외에 이와 같은 현지에서의 실무 훈련도 실시된다



Unit 14

남쪽 지방의 생활

1. 우리가 사는 남쪽 지방

영만이네 반에서는 우리 나라의 남쪽 지방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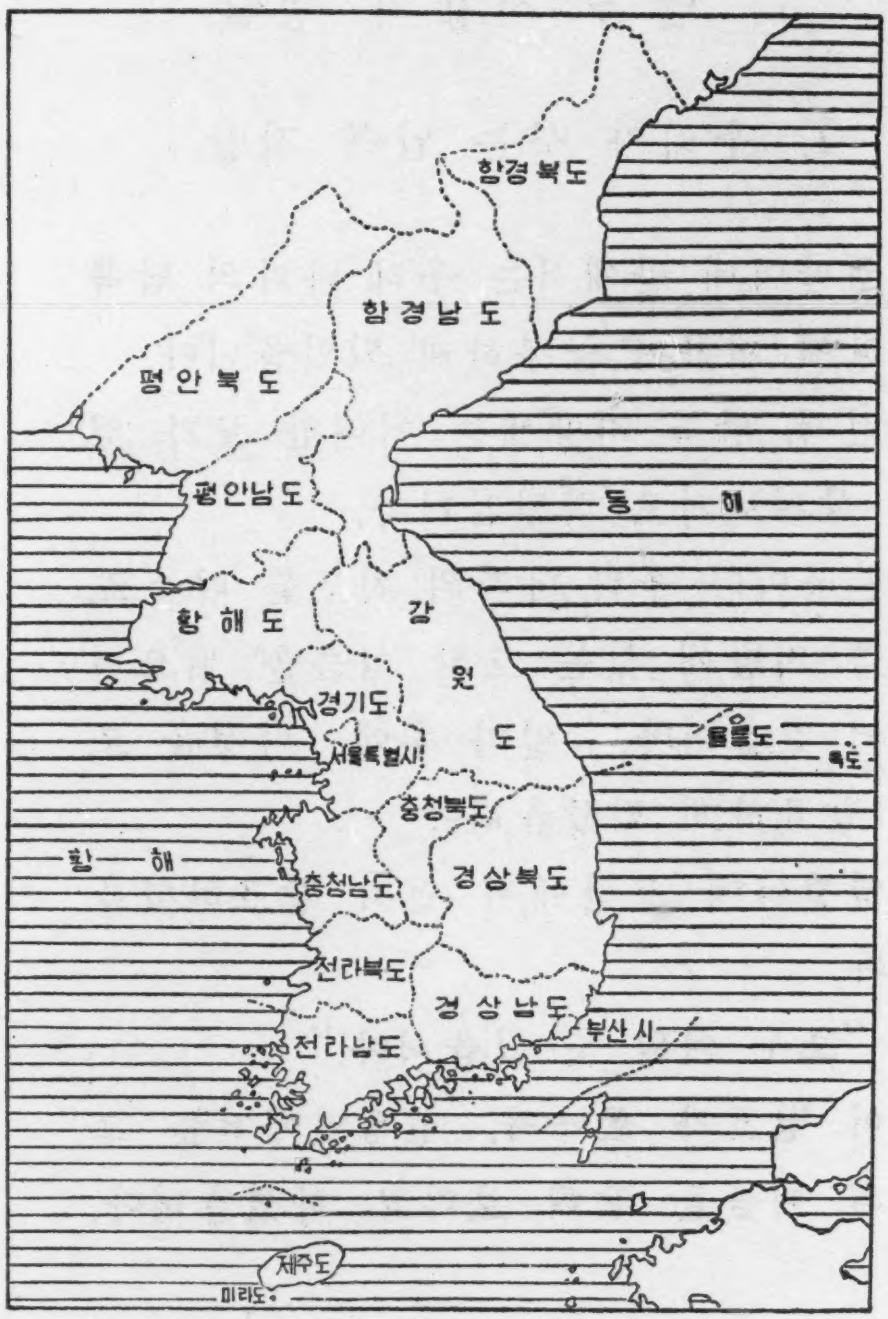
먼저, 남쪽 지방에는 어떠한 도가 있나 살펴보기로 하였읍니다.

분단마다 우리 나라의 지도를 펴놓고, 남쪽 지방에 있는 도의 이름을 읽으며 세어 갔읍니다. 얼마 후에, 이것을 모두 발표하게 되었읍니다.

영철이네 분단에서 먼저 발표하였읍니다.

"모두 여덟 도 있읍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 선생님께서는 그 도의 이름을 말해 보라고 하셨읍니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동
해
황해도
강
원
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울릉도
독도
충청북도
황
해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시
전라남도
제주도
마라도

영철이는 다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라고, 도 이름을 말했읍니다.

"틀렸읍니다. 틀렸읍니다."

하고, 다른 분단에서 또 손이 올랐읍니다.

이번에는 옥희네 분단에서 발표했읍니다. 옥희네 분단에서는 모두 열 도라고 발표했읍니다. 영철이네 분단에서 발표한 여덟 도에다가 제주도, 울릉도까지 넣어서 모두 열 도라고 한 것이었읍니다.

"틀렸읍니다. 틀렸읍니다."

하고, 또 다른 분단에서 발표했읍니다.

이번에는 기홍이네 분단에서 발표했

읍니다.

"서울 특별시, 부산 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제주도, 모두 한 특별시, 한 직할시, 아홉 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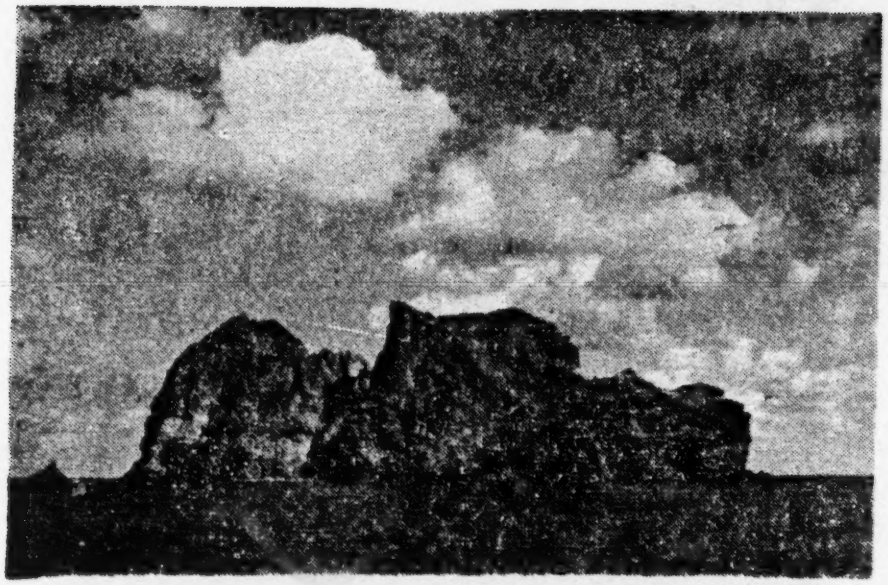
이 발표가 끝나자, 모두 손뼉을 쳤읍니다.

"지금 발표한 것이 맞았다. 영철이네 분단은 서울 특별시와 부산 직할시, 제주도를 빼 놓았기 때문에 여덟 도가 되었고, 옥희네 분단은 도가 아니고 섬인 울릉도를 넣었기 때문에 열 도가 된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춘식이가 여쭈었읍니다.

"울릉도는 어느 도에 들어갑니까?"

(독 도)



"좋은 질문이다. 울릉도는 경상 북도에 들어간다.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조그만 섬은 독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섬이라고 우겨대며, 우리 나라에서 표를 해 놓으면 몰래 와서는 지워 버려서, 퍽 말썽을 일으키던 섬이란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 나라의 표를 다시 하고, 우리 나라에서 등대까지도 세워

놓았단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춘식이가 또 물었읍니다.

"선생님, 독도에도 사람이 사나요?"

"아니다. 사람은 살지 않는단다.

독도는 바위로 된 조그만 섬이어서, 이제까지 어부들이 이따금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을 뿐이란다.

그런데, 독도 근처는 고기잡이터로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영철이는 우리 나라 우표에서도 독도 그림을 보았다고 하며, 신문이나 잡지에서 독도 그림을 모아다가 교실에다 붙이자고 하였읍니다.

2. 들 많고 섬 많은 남쪽 지방

이번에는 남쪽 지방의 땅모양에 대해서, 각 분단에서 발표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발표한 것은 영만이네 분단이었읍니다. 영만이는 교실 앞에 걸려 있는 커다란 지도를 가리키면서 말했읍니다.

"남쪽 지방에는 들이 많읍니다. 이 지도의 초록색을 칠한 곳이 전부 들입니다. 넓은 들이 있는 곳에는 대개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바닷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 곳이 많고, 또 섬도 많읍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있는 곳도 이 지방입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 순희가 말했읍니다.

"우리 나라의 남쪽은 지도에서 보면 역시 산이 많은데, 들이 많다는 것은 틀리지 않읍니까?"

이 말이 끝나자, 선생님께서는 곧 우리 나라의 지도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나라는 대체로 보아서, 산이 많은 나라이다. 10분의 7이 산이고 들은 10분의 3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남쪽 지방도 북쪽 지방보다는 들이 많지만, 역시 산이 들보다 많단다."

강과 들
(ㄱ) 한강
① 경기 평야
(ㄴ) 금강
② 내포 평야
③ 호남 평야
(ㄷ) 영산강
④ 나주 평야
(ㄹ) 낙동강
⑤ 김해 평야
높은 산
(가) 지리산 (나) 소백산 (다) 태백산
(라) 오대산 (마) 설악산 (바) 한라산

다음에는 경식이네 분단이 발표했읍니다.

"남쪽 지방에서도, 남쪽과 서쪽 바닷가에 들이 많읍니다. 이 한강이 흘러가는 곳이 경기 평야이고, 금강이 흘러가는 곳이 내포 평야와 호남 평야입니다. 그리고, 영산강이 흘러가는 곳이 나주 평야이고, 낙동강이 흘러가는 곳이 김해 평야입니다."

경식이가 발표하자, 선생님께서는 강까지 발표한 것은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들은 교통에도 많이 쓰이지만, 농사를 짓는 데, 전기를 일으키는 데도 쓰인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상철이네 분단에서는, 바닷가의 땅 모양에 대하여 자세히 발표했읍니다.

3. 날씨가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지방

우리 나라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철의 구별이 확실하고, 특히 가을 하늘이 우리 나라와 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은, 세계에서도 여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LOL 95

같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남쪽 지방은 북쪽보다 봄이 일찍 오고, 겨울이 짧읍니다. 겨울도 북쪽같이 춥지는 않읍니다.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겨울에도 동백꽃이 피며, 밭에는 시금치가 새파랗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물으셨읍니다.

"다 같은 우리 나라인데, 왜 겨울에는 북쪽보다 남쪽이 더 따뜻한지 아는 사람 있나요?"

여러 사람이 대답을 했으나, 아무도 맞추지 못하였읍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까닭을 대강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읍니다.

우리 나라의 남쪽 바다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오고, 북쪽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 오

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기후도 이 바람 관계로 겨울에 북쪽은 매우 춥고, 남쪽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북쪽 지방은 남쪽 지방보다 추운 법이고, 또 우리 나라의 바닷가를 스치는 바닷물도 북쪽에는 찬 물이 흐르고, 남쪽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읍니다.

남쪽 지방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농사짓기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물이 나는 일이 있읍니다. 더우기, 산에 나무가 적어서 큰물이 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산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산림 녹화" 운동을 매우 열심으로 하고 있읍니다.

4. 쌀과 생선이 많이 나는 남쪽 지방

"우리 나라의 남쪽 지방에서는 어떠한 곡식이 많이 나나요?"

선생님께서 물으시자, 영만이가 대답했읍니다.

"쌀이 제일 많이 납니다."

"맞았다. 그러면, 왜 남쪽에서 쌀이 많이 나는지 누가 말해 볼까?"

아이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기홍이가 손을 들었읍니다.

"우리 나라 지도를 보면, 북쪽에는 높은 산이 많고, 남쪽에는 들이 넓어서 논이 많아,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홍이의 대답이 매우 좋은 대답이라고 하시며, 남쪽 지방은 들도 많지만, 기후가 따뜻하고 강이 많아서, 물을 대기 편리하기 때문에, 매우 농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은 남쪽 지방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6.25 사변 때, 공산군들은 살기 좋고 쌀이 많이 나는 남쪽 지방이 탐이 나서, 빼앗아 보려는 못된 욕심에서 쳐들어왔다가, 도리어 큰 매를 맞고 쫓겨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물건들이 나나요?"

선생님께서는 또 물으셨읍니다.

아이들의 발표가 끝나자,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적으셨읍니다. 곡식으로는

쌀, 보리, 밀, 고구마가 있고, 옷감이 되는 것으로는 누에고치, 면화, 삼, 모시 같은 것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담배, 인삼도 나며, 사과, 배, 감 같은 과실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땔감으로서는 무연탄이 많이 나며, 강철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텅스텐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말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남쪽 지방은 삼 면이 바

다이기 때문에, 맛있는 좋은 생선이 많이 납니다.

동해에서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대구, 청어 같은 것이 많이 나고, 남해에서는 도미, 고등어, 멸치, 전광어가 나며, 황해에서는 조기와 민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남쪽에서 많이 나는 김은 일본으로도 팔린다고 합니다.

기후가 좋고, 좋은 물건이 많이 나는 남쪽 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읍니다.

QUESTIONS

1. 한국 남쪽 지방에는 도가 몇이 있읍니까?
2. 그 도의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3. 서울 하고 부산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4. 울릉도는 제주도에 들어갑니까?
5. 독도는 왜 중요한 섬입니까?

6. 들은 지도에 무슨 색으로 칠하여 표시합니까?
7. 북쪽 지방이 남쪽 지방보다 들이 많습니까?
8. 남쪽 지방에는 들이 많습니까? 山이 많습니까?
9. 섬은 북쪽 하고 남쪽 하고 어느지방에 더 많습니까?
10. 남쪽 지방의 큰 평야가 어데 어데 입니까?

11. 그 평야에는 무슨 강이 있읍니까?
12. 큰 강들은 무엇을 하는데 쓰입니까?
13. 한국은 네 철의 구별이 어떻습니까?
14. 겨울에 제주도에는 무슨 꽃과 무슨 야채가 자랍니까?
15. 남쪽이 왜 북쪽보다 겨울에 더 따뜻합니까?

16. "산림녹화"란 무슨 운동입니까?
17. 남쪽 지방은 왜 농사가 잘 됩니까?
18. 남쪽지방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납니까?
19. 동해에서는 무슨 생선이 많이 납니까?
20. 서해와 남해에서는 무슨 생선이 많이 납니까?

VOCABULARY

살펴보다		to examine
분단		section (of a class)
손뼉을치다		to clap one's hands
특별시	特別市	special city
직할		direct control
빼놓다		to omit
우겨대다		to insist on one's own way
말썽을 일으키다		to cause trouble
이따금		from time to time
고기잡이		fishing
들		plain, field
초록색		green
평야	平野	plain, field
농사를 짓다		to farm
드물다		to be rare
동백꽃	冬柏	camellia
시금치		spinach
스치다		to graze
녹화	綠化	afforestation
곡식		grain, cereals
물을대다 (논에)		to draw water into a paddy
누에고치		silkworm cocoon
삼		hemp
모시		ramie cloth
무연탄	無煙炭	anthracite coal

Unit 15

북쪽 지방의 생활

1. 다섯 도가 있는 북쪽 지방

6.25 사변 때, 북쪽에서 피난 나오신 영만이 삼촌은, 어느 날 저녁에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으시고, 북쪽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읍니다.

"영만아, 우리 나라는 모두 몇 도로 나뉘어 있는지 아니?"

"14 도입니다."

영만이가 대답하자, 삼촌은 고개를 흔들었읍니다. 영만이는 도와 마찬가지인 서울 특별시와 부산 직할시 생각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삼촌은 서울 특별시와 부산 직할시까지 합쳐서 2 시 14 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물으셨읍니다.

함경북도
함경 남도
평안 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 도
울릉도
독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경상 북도
전라북도
경상 남도
부산시
전라 남도
제주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도는 어느 도냐?"

"함경 남도."

영만이는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쉽게 찾아 냈읍니다.

"그 밖에, 북쪽 지방에는 어떠한 도가 있는지 말해 봐라."

영만이는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찾기 시작했읍니다.

"함경 북도, 평안 북도, 평안 남도, 황해도."

영만이가 대답하자, 삼촌께서는 맞았다고 하시며, 삼촌이 피난 오시기 전까지는 함경 남도에 계시었다고 하셨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함경 남·북도를 합쳐서 함경도라고 부르고, 평안 남·북도를 합쳐서 평안도라고 불렀다고 하셨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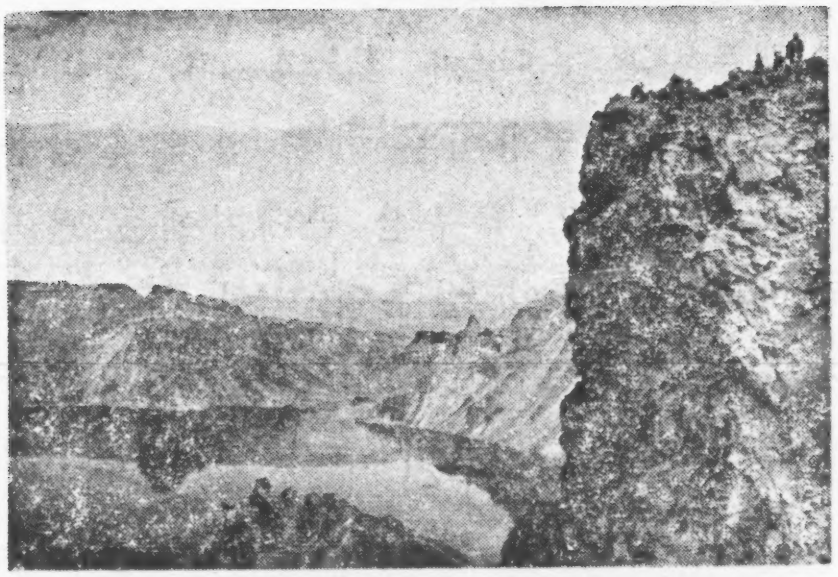
2. 백두산과 압록강이 있는 북쪽 지방

삼촌께서는 지도를 보시면서, 또 물으셨읍니다.

"북쪽 지방에는 산이 많으냐? 들이 많으냐?"

영만이는 지도의 초록색은 들이고, 흙색은 산을 나타낸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산이 많은 것을 얼른 알 수 있었읍니다.

(백두산의 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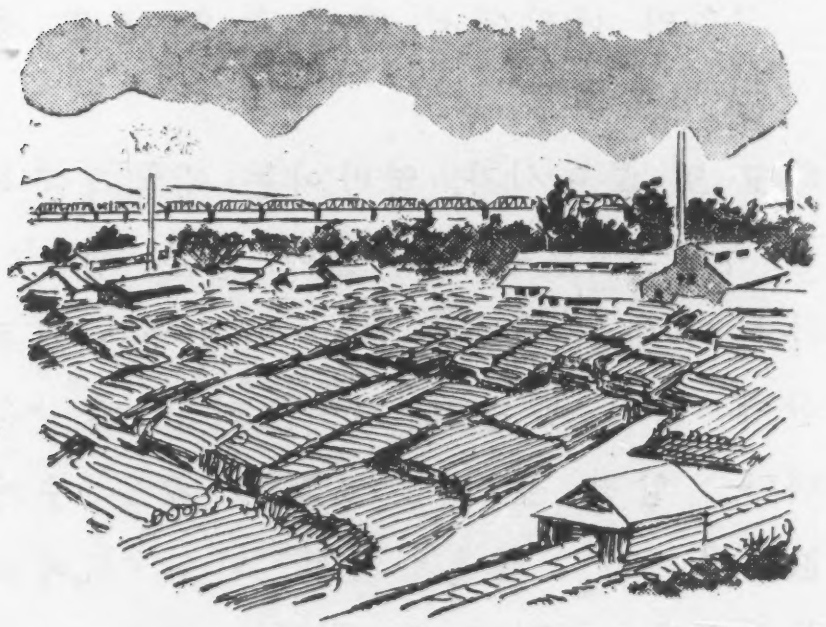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슨 산이지?"

하고 또 물으시자, 영만이는 애국가에서 늘 부르고 있는 백두산이 얼른 생각이 나서 대답을 하였읍니다. 다음에는 백두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읍니다. 암만 보아도 그것은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삼촌께서는 지도 위에서 백두산을 가르쳐 주시고는, 백두산 이

야기를 해 주셨읍니다.

백두산은 높이가 2,744 m나 된다는 말을 듣고, 영만이는 아주 깜짝 놀랐읍니다. 그리고,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천지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라는 것



도 가르쳐 주셨읍니다. 그리고, 압록강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긴 강인데, 그 길이는 790 *km*나 된다고 말씀하셔서, 또 한 번 놀랐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만이는 여쭈었읍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왜 그렇게 큰 못이 생겼을까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다. 옛날, 옛날, 오랜 옛날에, 백두산은 불을 뿜는 화산이었단다. 그러던 것이 불이 꺼지게 되자, 그 곳에 오랜 세월을 두고 물이 괴서 그렇게 된 것이란다."

그리고, 이 북쪽 지방에는 험한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군 아저씨와 유우엔군 아저씨들이, 북한 괴뢰군을 쳐부수러 압록강 가까지 쳐들어갈 때도 대

단히 고생을 하였지만, 중공 오랑캐들 때문에 후퇴를 할 때도, 산이 험해서 매우 고생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중공 오랑캐들이 나오는 것을 빨리 모른 것도, 북쪽 지방의 험한 산줄기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더 많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도, 모두 산이 많아서 교통이 불편한 탓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3.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는 북쪽 지방

다음에는 북쪽 지방의 날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읍니다.

북쪽 지방도 여름은 무척 더운데, 남쪽 지방보다 비는 훨씬 적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 지방은 겨울이 빨리 오며, 저 함경 남도나 함경 북도의 산골 지방에는,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면 벌써 서리가 내리고, 곳에 따라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만이는 추석날에 벌써 추워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날씨가 다른가 하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읍니다.

북쪽 지방은 이렇게 겨울이 일찍 오지만, 봄이 오는 것도 이 곳보다 늦어서 겨울이 퍽 길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인 중강진은 이 지방에 있고, 겨울이면 영하 30도가 계속되는 날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0 도면 물이 어는데, 그것보다 30도나 더 내려간다니, 그 추위는 생각도 못 할 만큼 추운 것입니다. 침을 뱉으면 떨어지는 대로 얼어버린다고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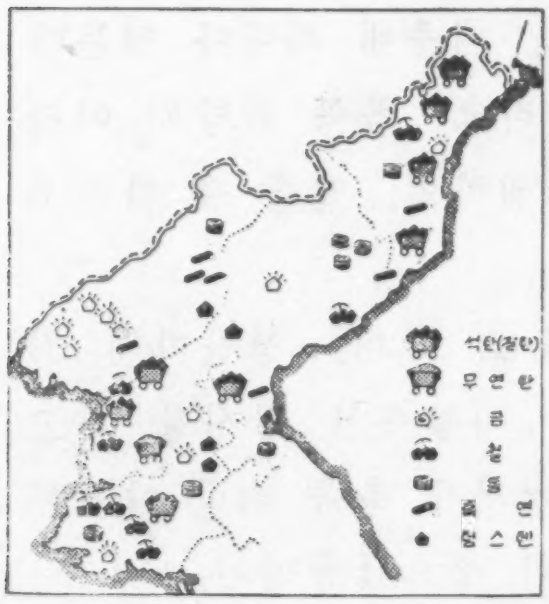
얼마나 추운 날씨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북쪽 지방 사람들의 여름 생활은 우리와 별다른 것이 없지만, 겨울 살림은 여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들도 모두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고, 지붕도 여간 두껍게 잇지를 않읍니다. 겨울 옷도 솜을 많이 두어 두껍게 지어 입으며,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많이 먹고 지내는 산골에서는, 이런 양식을 땅 속 깊이 묻어 두고, 겨우내 꺼내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의 여자들은 대체로 씩씩하며, 일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영만이네 집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들은, 대개가 북쪽 지방 아주머니들이라는 것이 생각났읍니다.

4. 금과 철이 많이 나는 북쪽 지방

북쪽 지방은 산이 많기 때문에, 좋은 나무도 많이 나지만, 특히 여러 가지 귀중한 쇠붙이가 많이 납니다.

황해도에서는 철이 많이 납니다. 철은 여러 가지 기계나 연모를 만드는 데 여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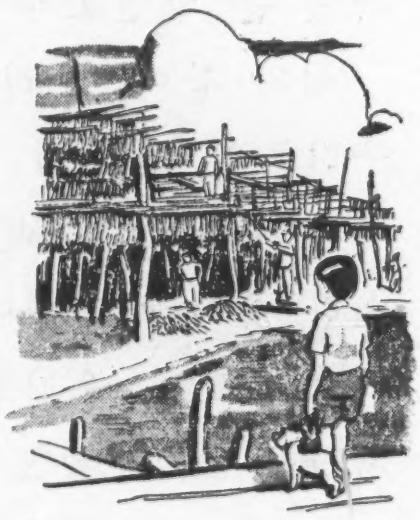
도에서는 강철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텅스텐이 많이 납니다.

금은 평안북도에서 많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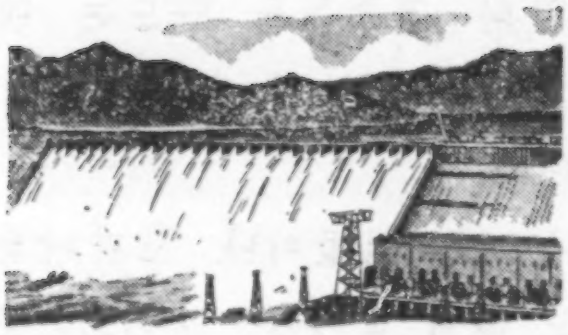
금은 옛날부터 귀중품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므로, 쇠붙이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 도에서는 또 연필이나 도가니를 만드는 흑연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평안 남도, 함경 북도에서는 석탄이 많이 납니다. 그 밖의 도에서도 여러 가지 쇠붙이가 납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의 동쪽 바다에서는 명태와 청어, 대구가 많이 납니다.



명태가 한창 많이 잡힐 때에는, 신포 같은 항구에는 명태가 산같이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물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등을 밝히고, 또 공장에서 큰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압록강 가의 수풍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큰 발전소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북쪽 지방은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많이 나는 곳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여간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루 바삐 북쪽 지방을 도로 찾도록 온갖 힘을 다 기울여 힘써야 하겠읍니다.

QUESTIONS

1. 함경남도는 한국에서 몇째로 큽니까?
2. 평안남도、평안북도를 합쳐서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3. 산은 지도에 무슨색으로 나타냅니까?
4.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5. 백두산이 어느 도에 있읍니까?

6. 백두산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7. 천지라는 못이 어데 있읍니까?
8. 천지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무엇입니까?
9. 천지에서 서쪽으로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10. 압록강의 길이는 얼마나 되지요?

11. 천지는 어떻게 해서 생겼읍니까?
12. 함경도에는 언제쯤에 서리가 내립니까?
13. 한국에서 제일추운곳은 어데입니까?
14. 멫도면 물이 업니까?
15. 중강진은 겨울에 영하.멫도까지 내려갑니까?

16. 북쪽지방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집니까?
17. 북쪽지방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18. 북쪽지방에서는 무슨 광석이 많이 납니까?
19. 북쪽지방의 해안에서 무슨 생선이 많이 잡힙니까?
20. 수풍에는 무엇이 있어서 중요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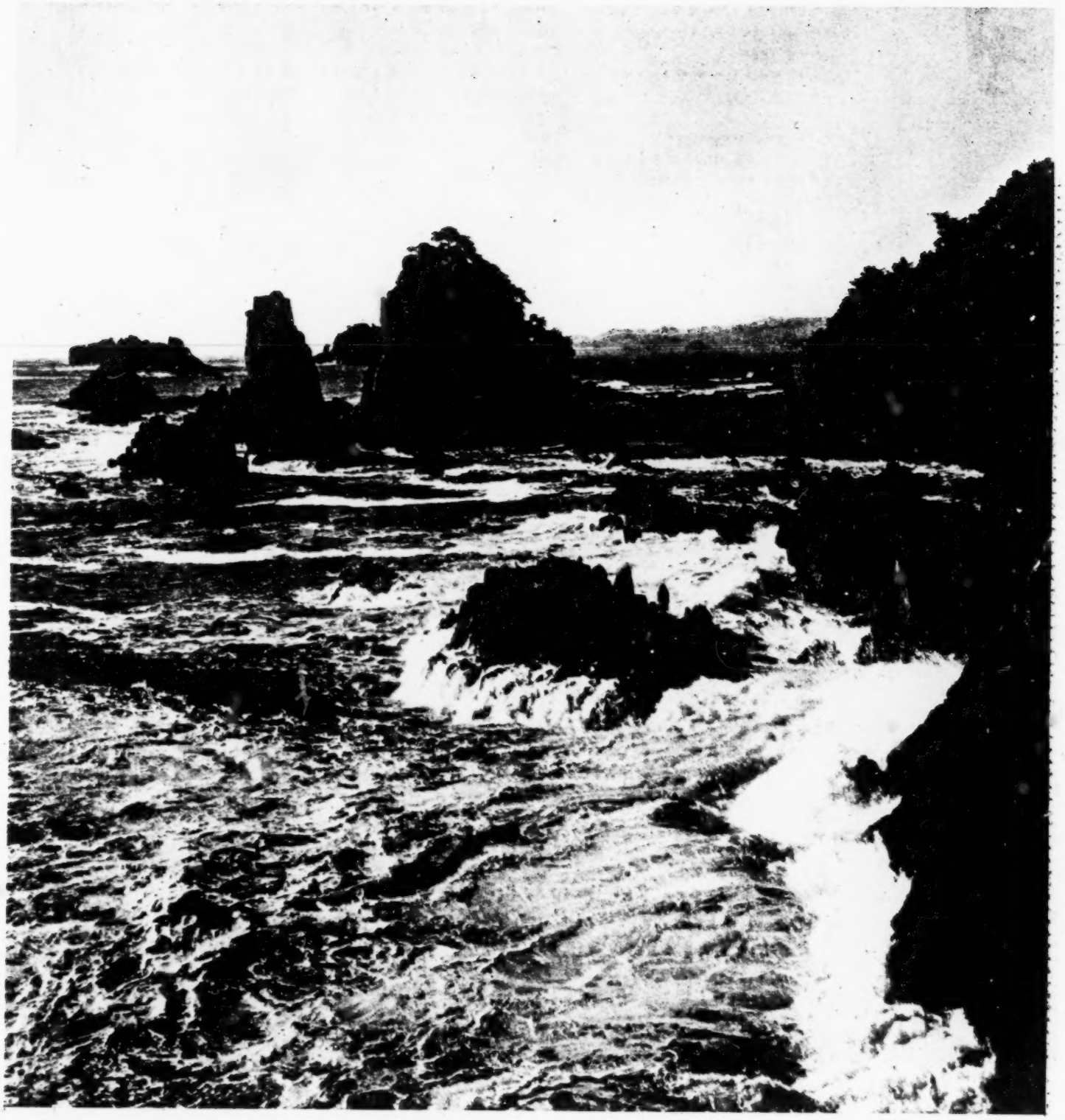
VOCABULARY

삼촌	三寸	uncle
깜짝 놀라다		to be startled
못		pond
여쭈다		to say (humbly)
뿜다		to spout
화산	火山	volcano
괴다		to collect (water, etc)
중공	中共	Red China
오랑캐		barbarian
동포		fellow countrymen
탓		reason
날씨		weather
산골		mountain district
맞이하다		to meet, to go to meet
서리		frost
침을 뱉다		to spit
침		saliva
지붕		roof
씩씩하다		to be energetic
쇠붙이		ironware
도가니		crucible
흑연		graphite
대구	大口	codfish
가		edge
청어	鯖魚	mackerel

어린시절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 유서깊은 만경봉에 오르시여 우리 조국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리라 뜨거운 애국심을 키우시였다. 유서깊은 만경봉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정신을 대대손손 길이 전하며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솟아있을것이다

"시"

만경봉에 태양이 솟아



Unit 16

석 가

석가는 지금부터 약 2,500 년 전, 인도(印度)의 북방(北方)에 사는 한 종족(種族)의 왕실(王室)의 태자로 태어났읍니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난 데다가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열심(熱心)히 하여서, 부모(父母)들은 훌륭한 임금이 되기를 바랐읍니다.

그러나, 석가는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천성(天性)이었으므로, 틈만 있으면 조용히 앉아서 인생(人生)의 여러 가지 문제(問題)를 풀려고 애썼읍니다.

그러자, 마침내 낳고(生), 늙고(老), 병들고(病), 죽는다는(死) 네 가지 괴로움에 허덕

이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집을 나가 더 공부함으로써, 이러한 괴로움을 면할 길을 찾겠다고 결심(決心)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는 스물 아홉 살 때, 왕자로서의 영광(榮光)된 자리와 호사스런 생활(生活)을 버리고 집을 나왔읍니다.

그리하여, 이름난 선생이라면 모조리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아 보았지만, 하나도 마음에 흡족하도록 가르쳐 주는 이는 없었읍니다.

석가는 하는 수 없이 선생에게 배운다는 것을 단념하고, 날마다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읍니다. 그리하여, 서른 다섯 살 되던 해 12월 8일, 샛별이 반짝일 무렵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었읍니다.

이 후부터, 석가는 자기가 깨달은 길, 즉 삶과 죽음과 괴로움을 뛰어넘어 영원히 편하고 즐거운 세계로 이르는 길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각처(各處)를 다니며 그 길에 대하여 가르쳤읍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 갔고, 각처에 그 길을 배우는 집이 세워졌읍니다. 이렇게, 석가는 십대 제자(十大弟子)를 거느리고, 한평생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기에 몸과 마음을 바치다가, 여든 살 되는 해 2월 15일에 세상을 떠났읍니다.

석가의 가르침, 즉 인생의 괴로움을 뛰어넘어 영원히 편하고 즐거운 세계에 이르는 길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자비심(慈悲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며, 가지가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불교(佛敎)라고 하는데, 그 후 중국(中國)과 동양(東洋) 여러 나라에 전하여졌으며, 우리 나라에도 일찌기 천 수백 여 년 전부터 들어와, 우리의 문화(文化)와 우리의 도덕(道德)에 많은 영향을 끼쳤읍니다.

신라(新羅)의 찬란한 문화는 불교의 영향이 매우 크며, 오늘날 음력 4월 8일의 관등회는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QUESTIONS

1. 석가는 언제 무엇으로 태어났읍니까?
2. 부모들은 석가가 무엇이 되기를 바랐읍니까?
3. 석가에게는 무엇을 하기 좋아하는 천성이 있었어요?
4. 석가는 무슨 문제를 풀려고 애썼읍니까?
5. 네 가지 괴로움이라면 무엇 무엇입니까?

6. 괴로움을 면할 길을 찾을려고 석가는 무엇을 결심하였어요?
7. 석가는 옛살때에 무엇을 버리고 집을 나왔읍니까?
8. 가르침을 받으려고 석가는 선생을 몇분이나 찾아갔어요?
9. 석가는 무엇을 단념했어요?
10.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석가는 무엇을 했읍니까?

11. 석가는 언제 부처님이 되었읍니까?
12. 석가가 깨달은 길이 무엇이었어요?
13. 석가는 누구를 거느리고 언제까지 사람들을 구제했읍니까?
14. 석가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15. 불교에서는 욕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했어요?

16. 한국에는 불교가 언제 들어왔읍니까?
17. 한국에서는 불교가 무슨 방면에 영향을 끼쳤읍니까?
18. 한국 어느시대에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읍니까?
19. 한국에서는 어느시대가 불교를 국교로 삼았읍니까?
20. 관등회는 언제 무엇을 축하하는 날입니까?

VOCABULARY

석가		Buddha
종족		tribe
왕실		king's family
태자		the Crown Prince
재주		talent
뛰어나다		to be outstanding
열심히	熱心	eagerly, zealously
임금		king
천성	天性	nature
풀다		to solve
그러자		then, soon thereafter
아침내		in the end
괴로움		sufferings
허덕이다		to struggle
헛되다		to be futile
깨닫다		to attain enlightenment
영광	榮光	glory
흡족하다	洽足	to be sufficient
단념하다	斷念	to give up
보리수	菩提樹	linden tree
부처		Buddha
자비심	慈悲心	mercy, compassion
욕심	慾心	desire
관등회		the Lantern Festival
행사	行事	event, function

Ginkgo tree in front of Myŏng-nyundang Hall was planted, according to legend, in 1519. Students from nearby Songkyurkwan University are often to be found studying under its shade.

17. 공 자

공자는 지금부터 약 2,500 년 전, 중국 노 나라에서 태어났읍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청년 시대에는 어머니조차 잃고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자랐읍니다. 그러나, 학문을 즐기고, 덕을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이천 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이 성인(聖人)으로 우러러 받드는 분이 된 것입니다.

공자는 본디 지극히 인자(仁慈)한 분이었읍니다. 특히 제자를 친 아들처럼 사랑하여서, 그를 따르는 제자의 수(數)가 삼천(三千)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의지(意志)가 강하고, 예절(禮節)을 지키고, 규칙적(規則的)인 생활을 하는 분이었읍니다. 언제 누가 보나, 단정(端正)한 몸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식사(食事) 같은 것도 드는 시간을 정(定)하여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어서, 퍽 이상적(理想的)인 인격자(人格者)였읍니다.

공자의 가르침의 중심(中心)이 되는 것은 인(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란 모든 일을 어진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중용(中庸)의 덕(德)도 가르치고, 한편 그 당시의 사회 질서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예(禮)를 주장하기도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공자의 가르침은 모두 일을 인과 예로 다스리자는 주장이었으므로, 정치(政治)에 대하여도 법률(法律)이나 형벌(刑罰)보다 덕으로 할 것을 주장(主張)하였읍니다.

또, 나라의 세력(勢力)을 늘리기 위하여,

남의 나라를 치거나 위협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百姓)들을 우선 덕으로 대하라고 주장하였읍니다.

한 때, 노 나라 정치에 관계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그 곳을 떠나,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갖은 고생(苦生)을 다하면서, 여러 지방(地方)에서 자기의 주장을 가르쳤읍니다.

이와 같은 공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을 논어(論語)라고 하며, 그 가르침을 유교(儒敎)라고 합니다.

유교는, 그 후 많은 학자(學者)들의 손으로 더욱 더 발전(發展)하고,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는 그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나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은 그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점이 가장 많다고 하겠읍니다.

QUESTIONS

1. 공자는 기원전 몇년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읍니까?
2. 공자는 어떻게 자랐읍니까?
3. 공자는 무엇을 즐기고 또 무엇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읍니까?
4. 공자는 본디 어떠한 분이었읍니까?
5. 공자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 해요?

6. 공자는 의지가 약한 분이었어요?
7. 그 분의 생활은 어땠읍니까?
8. 공자의 몸차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했어요?
9. 식사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0. 공자는 음악을 경시했읍니까?

11. 공자의 가르침은 무엇이 中心이 됩니까?
12. 중용의 덕은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13. 공자는 언제 예를 주장하였읍니까?
14. 정치에 대하여서는 무엇을 주장하였읍니까?
15. 남의 나라를 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주장했어요?

16. 노 나라 정치에 관계하다가 공자는 왜 사직했어요?
17. 그 후 공자는 어디에가서 무엇을 했어요?
18. 논어 라는 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9. 언제 유교가 한국에 소개됐읍니까?
20. 한국에서는 어느시대에 유교가 성하였읍니까?

VOCABULARY

공자	孔子	Confucius
여의다		to lose, be bereaved of
청년	青年	youth
조차		too, even
덕을 닦다		to cultivate virtue
게을리하다		to neglect
성인	聖人	sage
본디		by nature
인자하다	仁慈	to be benevolent
의지	意志	will, volition
예절		requirements of etiquette
규칙적	規則的	regular
단정하다	端正	to be neat
즐기다		to enjoy
너그럽다		to be broad-minded
식사	食事	meal
어기다		to violate, go against
이상적	理想的	ideal
인격자	人格者	man of character
인	仁	humaneness, benevolence
어진 마음		gentle mind
중용	中庸	The Doctrine of the Mean, golden mean
법률	法律	law
논어	論語	the Analects of Confucius
유교	儒敎	Confucianism

Another view of Chogesa Temple.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지금부터 약 2,400 년 전 아테네에 사는 한 조각가(彫刻家)의 아들로 태어났읍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날 크리스트, 석가, 공자와 더불어, 세계 사대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위대한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사회의 형편(形便)을 몹시 염려하고, 몸소 거리에 나서서 그 독특한 변론으로써 아테네 사람들의 정신(精神)을 깨우쳐 주었읍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것이 그의 표어였읍니다.

그는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진리(眞理)의 산파(産婆)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특색(特色)은, 도덕의 실행을 강조(強調)하고, 도덕은 곧 행복이라고 하는 점에 있읍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삼십 여 년 간을 청년들을 가르치기에 힘을 다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反對)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옥에 갇히어, 마침내 독약으로 사형을 받게까지 되었읍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조금도 원망하는 빛이 없었읍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악한 법률에 복종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꾸짖고, 나라의 법에는 자기 뜻에 맞건 아니 맞건 복종하여야 한다고 타이르는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인품(人品)을, 그의 제

자 제노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인류 중에 가장 올바르고 참을성 있고 총명한 사람이며, 인류 중에 가장 선량(善良)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옥에 갇히자, 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그의 덕에 감화(感化)되고 말았읍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을 시간(時間)이 가까와지자, 간수 하나가 들어와서,

"이 곳에 온 사람 중에서 가장 관대하고 부드럽고, 또 가장 위대한 인격자인 분이시여! 이제 그 때가 다가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약사발을 받고 처형되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플라톤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의 정신에 끼치는 바가 많읍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진리(眞理)에 따르고, 실행하는 데 있으며, 오늘날 학문의 큰 주춧돌이 되고 있읍니다.

QUESTIONS

1. 소크라테스는 몇년전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읍니까?
2. 세계 四大성인은 누구 누구입니까?
3.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명령하였읍니까?
4. 그분은 몸소 거리에 나가서 무엇을 했읍니까?
5. 소크라테스의 죄어는 무엇이었읍니까?

6. 소크라테스는 알아듣기 어렵게 말을 했읍니까?
7. 진리의 산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8.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특색은 무엇이었읍니까?
9. 소크라테스는 도덕이 곧 무엇이라고 했어요?
10. 그 분은 청년들을 몇년 동안이나 가르쳤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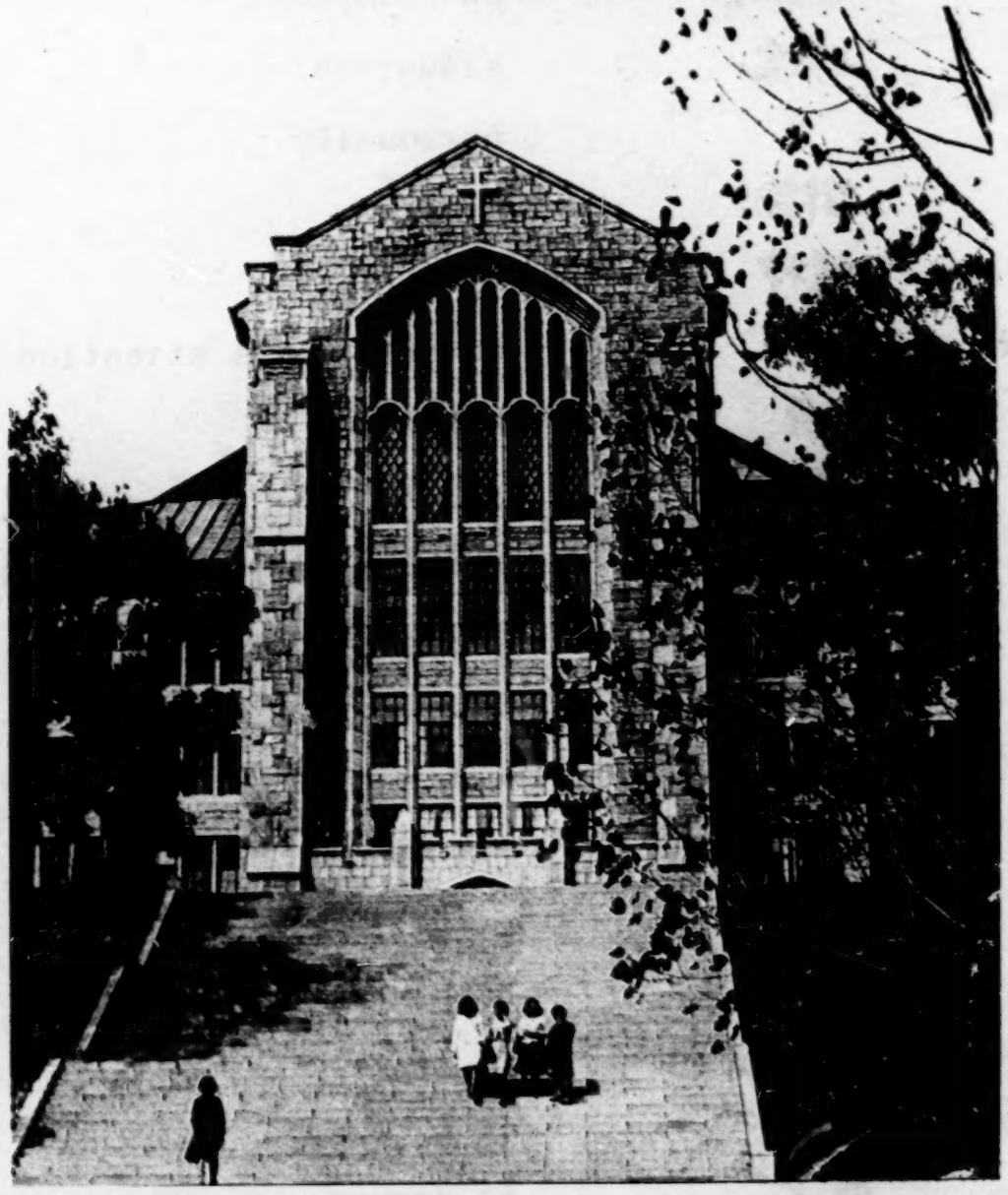
11.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누구의 손으로 옥에 갇히게 됐어요?
12. 무엇으로 사형을 받게 되었읍니까?
13. 옥에 있는동안 소크라테스는 누구를 원망했어요?
14. 소크라테스는 왜 제자들을 꾸짖었읍니까?
15. 소크라테스는 무엇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했읍니까?

16. 제자 제노핀이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어떻게 평했읍니까?
17.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18. 간수들이 왜 눈물을 흘렸읍니까?
19. 플라톤이 누구며 무슨 일을 했읍니까?
20.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오늘날 학문에 무슨 영향을 주었어요?

VOCABULARY

소크라테스		Socrates
조각가	彫刻家	sculptor
더불어		with
칭호	稱呼	name, title
철학자	哲學者	philosopher
형편	形便	situation
몸소		personally
변론	辯論	debate
정신	精神	mind, spirit
깨우치다		to call one's attention to
자신	自身	self
표어	標語	slogan
하여금		letting, making, forcing
스스로		of one's own accord
진리	眞理	truth
산파		midwife
도덕	道德	morals, morality
강조	强調	emphasis
행복	幸福	happiness
반대하다	反對	to oppose
옥에 갇히다	獄	to be imprisoned
원망하다	怨望	to resent
인품	人品	personal dignity
감화하다	感化	to influence, convert, reform
주춧돌		foundation stone, cornerstone

Ehwa Women's University was founded by American missionaries; its enrollment of eight thousand places it among the largest women's universities in the world.



Unit 19

예수 크리스트

예수는 지금부터 약(約) 1,960 년 전(前)에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읍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낳았으므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전(傳)하여 지고 있읍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열 두 제자(弟子)가 가장 유명(有名)하며, 그 제자들의 힘으로 예수의 가르침이 후세(後世)에 전하여졌읍니다.

이것을 예수교, 또는 크리스트교라고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支配)하는 신(神), 즉 하느님은 단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 사람으로서 올바른 일을 한다면, 하느님은 그 사람을 도와 주시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생(生)을 얻어 복을 누리는 천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길은 남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셨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내놓아라."

하는 말씀은 그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낸 말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예수는 몸소 실행(實行)하셨읍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나라 안에 점점 전파되자, 그 가르침이 그 때의 율법을 어기고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 하여, 예수는 잡힌 바 되어, 두 사람의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읍니다.

즉,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한 값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 손에 잡혀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 저 불쌍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고, 기도하여 주었읍니다.

그는 '사랑'으로써 사람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전하여진 예수의 가르침은, 그 후 이천 년 동안이나 여러 사람에게 전하여져서, 서양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에도 그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오늘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가장 중요한 인권(人權) 존중(尊重) 사상(思想)은 예수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라 하겠읍니다.

오늘날 12월 25일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세계적인 명절로 되어 있읍니다.

QUESTIONS

1. 예수는 언제 어데서 태어났읍니까?
2. 예수는 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여지고있어요?
3. 예수는 유명한 제자가 몇명있었읍니까?
4. 예수의 가르침은 어떻게 후세에 전하여졌읍니까?
5.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느님이 뜻은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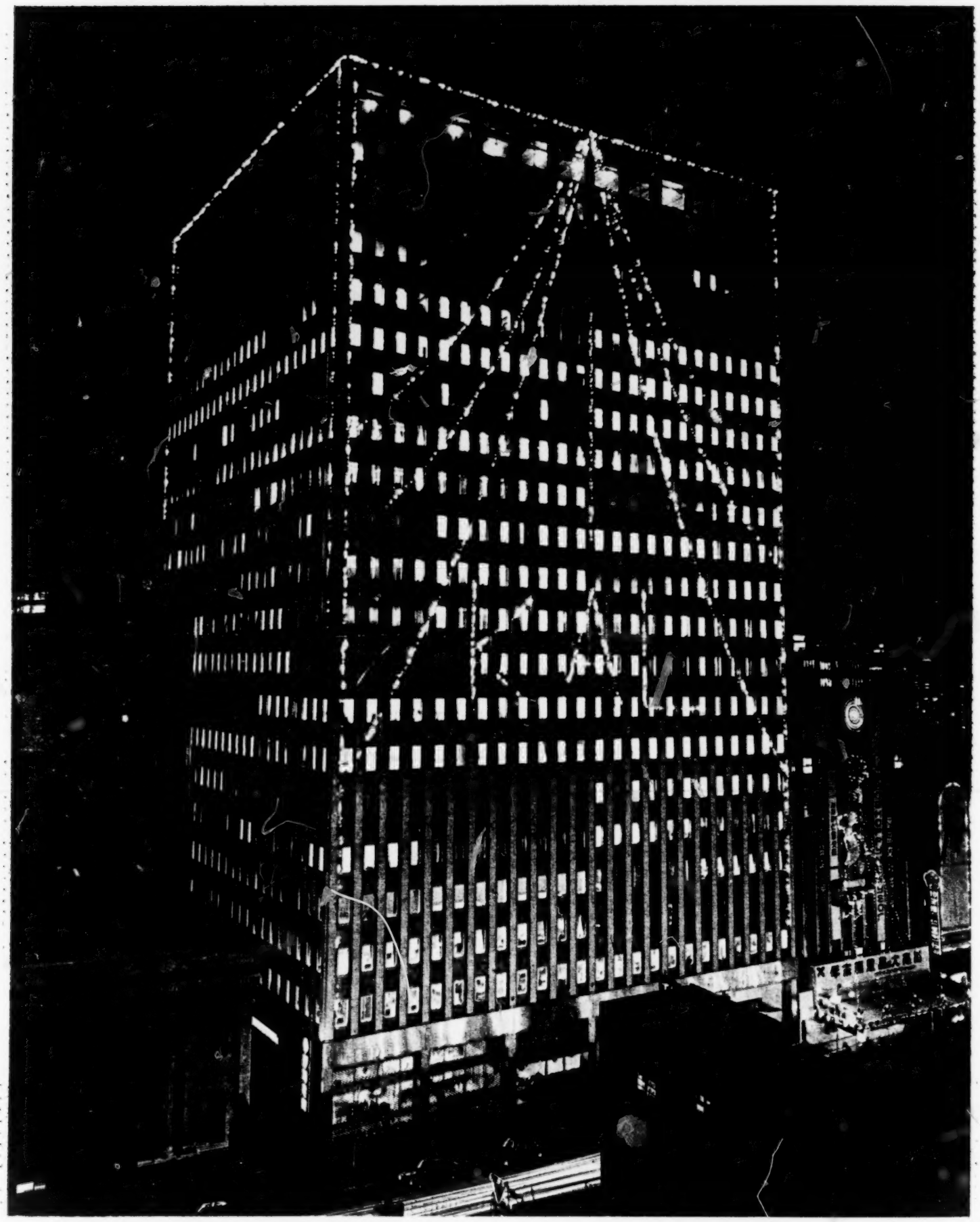
6. 하느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섬기라고 했읍니까?
7. 어떻게하는사람에게 영원한 生을 얻도록 하겠읍니까?
8. 누가 또 천당에 갈 수 있읍니까?
9. 예수는 무엇이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길이라고 했읍니까?
10. 예수에 의하면 원수를 미워할수있읍니까?

11. 예수는 오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읍니까?
12. 예수의 가르침이 그 때의 율법을 어떻게 했읍니까?
13. 예수는 왜 잡혔읍니까?
14. 예수는 누구와 함께 사형을 당했읍니까?
15. 예수의 죽음을 왜 참혹했다고 할수있을까요?

16. 예수는 오히려 누구를 불상한사람이라고 했어요?
17. 예수는 무엇으로써 사람을 구하려고 했어요?
18. 예수의 가르침은 그후 몇년동안 성해 내려왔읍니까?
19. 민주주의의 어떤 사상이 예수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라 하겠읍니까?
20. 무슨 날이 세계적인 명절로 되어있읍니까?

VOCABULARY

예수		Jesus
유대		Israel
태어나다		to be born
마리아		the Virgin Mary
하나님의 은총		the grace of God
전하다	傳	to transmit
제자	弟子	disciple
후세	後世	future generations
예수교		Christianity
지배하다	支配	to control
신	神	god
섬기다		to serve, wait on
영원하다	永遠	to be eternal
생	生	life
복을누리다	福	to enjoy happiness
천당	天堂	Heaven
원수		enemy
뺨		cheek
내놓다		to bring out
몸소		in person
실행하다	実行	to practice
전파하다		to propagate
율법		law
십자가	十字架	cross
인권		human rights



Unit 20

크리스마스 송가

나오는 사람들

스크리지 (구두쇠 영감)

조카

그의 아내

아들 1, 2, 3

보브 (그의 서기)

신사 (동정금 모금원)

마레의 영혼

제1 영 (과거의 영혼)

제2 영 (현재의 영혼)

제3 영 (미래의 영혼)

상인 1, 2, 3, 4

그 밖에 거지, 아이들, 교인들

때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크리스마스날까지

곳

런던

☆ 제 1 막 ☆

어두컴컴한 방, 헌 의자에 앉은 스크리지 ——마른 몸집, 험상궂은 얼굴, 한 쪽 구석에 그의 서기 보브가 촛불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추워서 견디기 어렵다는 듯, 발 끝으로 가만가만 걸어서 난로 있는 데로 가서 석탄 한 덩이를 집는다. 주인 스크리지가 돌아본다.

스크리지 "자넨 이 방이 춥다고 생각하나?"

보브 "(깜짝 놀라며) 아, 아, 아니올시다, 주인님." (석탄을 도로 놓고, 제 자리에 가 앉는다. 후들후들 떤다. 손이 시려 촛불에 댄다.)

스크리지 (돌아보고) "도대체 자넨 뭐가 추워 그렇게 벌벌 떨고 있나?"

보브 "춥지는 않읍니다. 손가락이 얼면 글씨를 못 쓸까 봐서요." (다시 사무를 본다. 바로 그 때 신사 한 사람이 들어온다.)

신사 "여기가 '스크리지 마레 상점'입니까?"

스크리지 "그렇습니다."

신사 "두 분 중 한 분을 속 뵈었으면 합니다 마는."

스크루지 "마레타는 친구는 벌써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바로 오늘이 그 친구가 죽은 날 밤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이니깐요."

신사 "그럼 스크루지 주인님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인님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 슬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동정금을 모으러 다니는 길입니다."

스크루지 "우리 나라에 빈민 구제소는 없던가요?"

신사 "그야 있읍지요만."

스크루지 "그럼 당신이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좋을 게 아니오?"

신사 "그렇지만……"

스크루지 (말을 막으며)"뭐가 그렇지만입니까?"

신사 "그렇지만,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조금

이라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자, 주인님. 얼마를 적으시렵니까?"

스크리지 "난 그런 건 모르오."

신사 "그럼 남 하는 대로 조금만 적으시지요."

스크리지 "난 못 하겠소. 난 크리스마스날에도 놀 줄 모르는 사람이오. 난 놀기만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보기 싫어 죽을 지경이오. 난 빈민 구제비를 또박또박

물고 있소. 그 이상 다른 돈을 나는 낼 수 없소. 구차한 사람은 그리로 가면 될 게 아니오."

신사 "그럼 조금도 못 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스크리지 "날더러 레코오드판이 되란 말이오? 왜 자꾸 같은 말을 시키지 못해 애를 쓰는 거요?"

신사 "실례했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가 버린다.)

스크리지 "날더러 돈을 내라고? 어림도 없는 수작이지."

보브 "그러기에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 봅지요?"

(스크리지의 조카가 들어온다. 몹시 기쁜 표정이다.)

조카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스크리지 "시끄럽다, 이 놈아!"

조카 "예? 크리스마스가 시끄럽다는 말입니까, 내 말이 시끄럽다는 말입니까?"

스크루지 "도대체 뭐가 기쁘단 말이냐? 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니는 놈들은 모두 심장을 꼬챙이로 찔러 주고 싶도록 아니꼬와!"

조카 "그렇지만 아저씨! 크리스마스가 왜 즐겁지 않다는 말입니까? 일 년에 단 한 번씩 서로 정답게 모여 노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서로 잘못을 용서해 주고, 사이가 나빠졌던 사람들도 의좋게 지내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어요."

스크루지 "듣기 싫어. 네게는 네 식의 크리스마스가 있을 테고, 내게는 내 식의 크리스마스가 있을 게 아니냐? 그렇게 약장수처럼 떠벌릴 필요는 없어. 우리 집에는 크리스마스를 살 사람은 없으니까."

조카 "그러지 말고 내일 우리 집 만찬회에 오셔요, 예?"

스크리지 "안 간다."

조카 "아저씨, 아저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건 바라지 않겠어요."

스크리지 "어서 가!"

조카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리지 "잘 가!"

보브 (문을 열어 준다.)

조카 "메리 크리스마스!"

보브 "메리 크리스마스!"

조카 "온 집안 식구가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보브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셔요."

(조카 나가 버린다.)

스크리지 "도대체 자넨 왜 또 크리스마스가 즐거운가? 가난뱅이 살림을 하면서……"

보브 "모두 한 자리에 둘러앉으면 행복해요."

(시계를 본다.)

스크리지 "자네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보브 "아… 아니올시다."

스크리지 "이젠 시간이 됐으니 가도 좋아. 아마 자네도 내일 하루는 쉬고 싶을 테지?"

보브 "주인님이 괜찮으시다면……"

스크리지 "그렇지만, 내일 하루 품삯을 제한다고 불평을 말하진 않을 테지?"

보브 "그렇지만, 일 년에 단 하루……"

스크리지 "알았어. 그 대신 모레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네."

보브 "예,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나간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멈춰 서서 성탄 노래를 부른다.)

스크리지 "저리 가라, 시끄럽다."(아이들이 무서워 달아난다. 보브 나간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브를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

보브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리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상점 문을 잠그며) "미친 녀석들!"

(막)

☆ 제 2 막 ☆

(쓸쓸한 스크리지의 방. 스크리지가 들어와 모자와 웃옷을 벗어 놓는다. 촛불을 켜 들고 복도로 통하는 방문에 쇠를 잠근다. 옷을 갈아 입고 난로 곁에 와 앉는다. (사이) 방에 단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 소리 점점 요란해진다. 스크리지 깜짝 놀란다.)

스크리지 "누가 종을 울릴까? 바깥 문은 걸었고, 그렇다고 응접실에 누가 있을 리도 없는데……

(종 소리 그치자,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린다.) 응! 이게 무슨 소릴까? 마치 지하실에서 누가 쇠사슬을 끌고 올라오는 것 같다. 아니, 이 방을 향해 오는 소리가 아닌가? 아니야. 내가 괜히 무서워하는 거야. 울 리 없지. 온대도 방문을 잠갔으니깐." (방문이 열리며, 마레의 영이 들어온다. 생전에 입던 옷과 신발을 신었다. 그런데, 몸에는 강철로 만든 장부, 증서, 열쇠 같은 모

양으로 된 사슬을 줄줄 끌고 들어온다.)

스크리지 "누구냐?"

영 "누구냐고 묻지 말고 누구였나 물어 보게."

스크리지 "누구였나?"

영 "내가 바로 자네와 상점을 같이 경영하던 자네 친구 마레야."

스크리지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왔나? 그래 앉을 수 있나?"

영 "이렇게 앉을 수 있지."(스크리지의 곁에 와서 앉는다.)

스크리지 "온 까닭은?"

영 "자네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스크리지 "믿고 말고. 어서 온 까닭을 말하게. 그런데, 자네 왜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 다니나?"

영 "이게 내가 생전에 만든 사슬이라네. 이 사슬들이 무엇으로 되었나 자세히 보게."

스크리지 "금고와 열쇠와 장부책과, 돈지갑 모양으로 된 사슬이로군. 몹시 무겁겠네그려."

영 "자네 사슬은 인제 더 무거울 걸세. 나보다 칠 년이나 더 일했으니까."

스크리지 "내 사슬이라니, 나도 그런 사슬을 몸에 감고 다녀야 하나?"

영 "물론이지. 현재 내 운명이 앞으로 자네 운명과 같을 걸세."

스크리지 "온 천만에, 나야 그럴 리 없지."

영 "자네라고 면할 길은 없지. 자, 시간이 되었으니 난 그만 가 봐야겠어."

스크리지 "이 사람,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고 가게."

영 "이제 자네 앞에 세 가지의 영이 나타날 것일세. 그들과 의논해 보게나. 자, 난 그만 가겠네." (문 쪽으로 뒷걸음질한다. 저절로 문이 열린다. 영이 사라진다.)

스크리지 (무서워 못 견디는 듯이 다시 난로 옆에 와 앉는다.) "이걸 어떡하나? 아니야, 헛소리야. 모두 꿈이었어. 내가 허깨비를 본 거야.

(밝은 빛이 흘러든다. 첫째 영이 나타난다. 얼굴은 아이인데 머리털은 희다.) 누구냐, 너는?"

제1 영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영이다."

스크리지 "과거라니?"

제1 영 "자네의 어렸을 때다. 자! 내 뒤를

따라 나서게."

스크리지 "밖은 추울 텐데……"

제1 영 "싫으면 그만 두게. 그게 자네를 구원하는 길이라도 싫은가?"

스크리지 "갈 테다. 나를 데리고 가 주게."

제1 영 "그럼 함께 가자."

(둘이서 퇴장한다.) (막)

☆ 제 3 막 ☆

제 1 장

(스크리지의 조카네 방. 집안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전야 축하 회장. 제2 영 <현재의 영> 스크리지를 데리고 나타난다.)

제2 영 "자아, 여기가 네 조카네 집이다."

스크리지 "우리가 여기 나타나면 축하회가 싱거워지지 않을까?"

제2 영 "지금 저희들의 눈엔 우리가 안 보인다네.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여도 저들에겐 안 들릴 테니깐. 자네 아까 과거의 크리스마스 영과 함께 여기 저기 다니며 재미있는 구경을 했을 텐데, 감상이 어떤가?"

스크리지 "지난 날의 나는 너무 인정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동무들과 남에게 너무 냉정한 일을 많이 했어. 과거의 크리스마스 영은 내게 그런 장면만 보여 주었어. 내가 생각해도 몸서리쳐지는 일이거든. 이제 나는 내 과거를 전부 뉘우치네."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조카네 식구들은 식탁에 음식을 나르며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제2 영 "그럼, 이제 이 방에서 현재의 자네 모습을 잠깐 구경하기로 하세."

아들 1 "자아, 이제부터 제가 즐거운 스무고개를 할께요."

조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아들 1 "그럼, 처음에는 동물성."

아들 2 "새입니까?"

아들 1 "아닙니다."

아들 3 "고기입니까?"

아들 1 "아닙니다."

아내 "짐승이냐?"

아들 1 "글쎄요, 짐승이지요."

아들 2 "집에서 기릅니까?"

아들 1 "집에는 있지만 기르진 않지요."

조카 "런던 안에 있지?"

아들 1 "그렇습니다."

아내 "귀엽게 생겼니?"

아들 1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들 2 "곰입니까?"

아들 1 "조금 비슷합니다."

아들 3 "돼지입니까?"

아들 1 "곰과 돼지의 중간입니다."

아내 "그런 짐승도 있니?"

아들 2 "그런 짐승이 어디 있어."

조카 "아! 알았다. 스크리지 아저씨!"

아들 1 "맞았어요."

일동 "하하하……"(유쾌하게 웃는다.)

조카 "우리 불쌍한 아저씨를 위하여 축배를 들자. 오늘 오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제2 영 "자, 이젠 시간이 다 됐다. 가자."

(그들이 퇴장하려 할 때 거지 아이 둘이 등장한다.)

스크리지 "이 애들을 구제해 주자."

제2 영 "내버려 둬라. 고아원과 빈민 구제소가 있다. 그들에게 맡기면 된다."

스크리지 "그건 내가 하던 소리다. 이제 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무척 후회한다. 자, 이 애들을 돌보아 주자."

제2 영 "그럴 시간은 없다. 난 이제 갈 테다. 이제 미래의 크리스마스 영이 널 찾아올 테니, 그를 만나도록 해라." (그러자, 제2 영은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스크리지가 멍하니 서 있는데, 제3 영이 등장한다.)

스크리지 "자네가 미래의 크리스마스 영인가?"

제3영 "그렇다. 나를 따라 오라."

(둘이서 퇴장할 때 불이 꺼진다.)

제 2 장

(상인들이 많이 모여 떠드는 어느 상점에 미래의 크리스마스 영이 스크리지를 데리고 나타난다.)

상인 1 "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상인 2 "언제?"

상인 3 "바로 어제 저녁에."

상인 4 (하품을 하며) "난 통 알지 못했어."

상인 1 "아나마나한 일이지."

상인 2 "그에겐 한 사람의 친구도 없었으니까."

상인 3 "그러니까, 장례식에도 손님이 전혀 없을 거야."

상인 4 "물론 그럴 테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상인 1 "그러나, 스크리지는 퍽 부지런한 사람이긴 하였어."

상인 2 "부지런하면 뭘 해."

상인 3 "참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바보! 그게 사람인가 돼지지."

스크리지 "바로 저 사람들이 내 장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3 영 "이제서야 알았나?"

스크리지 "왜 내게 이런 장면을 보여 주는 거냐? 아직도 늦지 않았지? 내게도 희망이 있다고 그래 다오. 난 이제부터 크리스마스를 뜻있게 보내겠다. 미래의 크리스마스 영아, 왜 대답을 안 해 주고 달아나는 거냐?"

(제3 영 달아난다.)

스크리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 다오. (쓰러져 울며) 아! 벌써 그는 가 버렸구나!"

(막)

☆ 제 4 막 ☆

제 1 장

(이튿날 아침, 스크리지의 방. 그는 난로 옆에 앉아 있다.)

스크리지 (졸면서) "크리스마스 영아!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해 다오.

(교회 종 소리. 잠이 깨어 사방을 둘러본다.)

응? 여기가 어딜까? 아니 여긴 내 방이다. 내 책상, 내 의자, 난 여기 있다. 저게 마레가 들어오던 문이다. 크리스마스 영이 들어오던 창이 있다. (사이) 그렇다. 나는 아주 변했다. 몸이 마치 새털같이 가벼워졌다. 천사처럼 명랑해졌다. 국민 학교 어린애들처럼 명랑해졌단 말이야. (빙그레 웃으며) 대체 오늘이 며칠인지도 난 모른다. 오랫동안 난 크리스마스 영들과 함께 다녔으니깐, 모르는 것이 좋을는지 몰라. (어린애처럼 창가로 가며) 오! 맑은 아침, 빛나는 태양!

신선한 공기, 아아 상쾌한 아침이다. (지나가는 아이에게) 오늘이 며칠이지?"

아이 (밖에서) "예? 할아버진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줄 모르셔요? 괜히 그래요. 내가 모를까 봐서요?"

스크리지 "그래! 착한 아이다. (돈을 던져 주며)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성탄에 복 많이 받으셔요."

스크리지 "그래, 잘 가거라."

(이 때 아이 하나가 들어온다.)

"얘, 너 요 앞에 닭 파는 집에 가서, 제일 큰 칠면조 하나만 사 오너라." (돈을 준다.)

아이 "예, 사 가지고 이리 와요?"

스크리지 "아니야, 우리 상점 서기네 집 알지?"

아이 "보브 아저씨 댁이오?"

스크리지 "그래."

아이 "알아요."

스크리지 "늦었지만 그 집에 가져가거라. 그렇지만, 누가 보내더란 말을 해서는 안 돼."

아이 "예, 알았어요."

스크리지 "자, 이건 네게 주는 심부름 값!"

(돈을 또 준다.)

아이 "아저씨, 그럼 갔다 올께요."(나간다.)

스크리지 "보브가 오거든 월급을 올려 주어야겠다. 아마 놀랄걸. 자, 이젠 나도 옷을 갈아 입고 조카와 함께 만찬을 같이 해야지. 오, 친구 마레! 자넨 나를 구원해 주었네, 감사하네. 아, 즐거운 크리스마스! 아, 기쁜 날."

(불이 꺼진다.)

제 2 장

(어느 교회 앞. 스크리지 좋은 옷을 입고 다른 교인들과 함께 나간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벙글거린다.)

젊은 부인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리지 "메리 크리스마스!"

젊은 신사 "메리 크리스마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 동정금을 모으던 신사 나온다.)

스크리지 "아, 참 잘 만났읍니다. 동정금은 많이 모았소? (신사에게 악수를 청한다.) 어제는 실례했소. (신사의 귀에 대고 수군거린다.) 적지만 그만큼 적어 주시오."

신사 "스크리지 씨! 그게 참말입니까?"

스크리지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돈만은

틀림없이 곧 내겠읍니다."

신사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신다니 감사하기 짝이 없읍니다."

스크리지 "그럼, 우리 집에 와 주시겠어요?"

신사 "가다뿐이겠읍니까?"

(서로 악수하고 헤어진다. 신사 퇴장한 뒤, 거지 한 사람 등장한다. 스크리지 따라 간다.)

스크리지 "이거 봐! 자네는 왜 내게 손을 내밀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가?"

거지 "당신에게요? 당신은 구두쇠 스크리지 영감이 아닙니까?"

스크리지 "난 이제 새로 태어난 스크리지야! (거지에게 돈을 주며) 메리 크리스마스!"

(퇴장한다.)

거지 "도대체 저 구두쇠 스크리지 영감이 미친 모양이지. 미쳐도 이만저만 미치지 않았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걸!"

(크리스마스 송가 가까이 들려 오며 막이 내린

QUESTIONS

1. 크리스마스때에 런던일기가 어떻습니까?
2. 추운데 보브는 왜 석탄을 도로 놓았읍니까?
3. 보브는 왜 손을 촛불에 댔읍니까?
4. 마레는 몇년전에 세상을 떠났읍니까?
5. 신사는 무엇을 하러 이 상점에 들어왔읍니까?

6. 빈민구제소는 무슨 일을 하는데 입니까?
7. 스크리지가 동정금을 곧 주었읍니까?
8. 스크리지는 빈민구제비를 내지 않고있읍니까?
9. 스크리지는 자기의 조카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교환했읍니까?
10. 스크리지는 누구보고 약장사처럼 떠벌린다고 했어요?

11. 누가 누구를 만찬회에 초대했읍니까?
12. 스크리지가 보브를 하루 놀게하는 대신에 무엇을하라고 했어요?
13. 마레의 영은 무엇에 매여다녔읍니까?
14. 그 사슬은 무엇으로 된사슬입니까?
15. 스크리지는 몇 가지의 영을 만났읍니까?

16. 과거의 크리스마스 영이 스크리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어요?
17. 스무고개가 누구에 대해서 이었읍니까?
18. 미래의 크리스마스 영이 무엇을 보여주었읍니까?
19. 스크리지는 상점서기 보브한테 무엇을 사 보냈어요?
20. 친구 마레 때문에 스크리지가 어떻게 변했읍니까?

VOCABULARY

송가		hymn
영혼		spirit
서기		clerk
촛불		candlelight
도대체	都大体	(what) on earth
신사	紳士	gentleman
헐벗다		to be poorly clothed
굶주리다		to starve
불쌍하다		to be pitiful
동정금	同情金	charity funds
빈민	貧民	poor people
구제		relief
맞이하다		to welcome, to go out to meet
게으름뱅이		lazybones
또박또박		regularly, neatly, punctually
구차하다		to be very poor
어림없다		to be far from it
성탄	聖誕	Christmas
시끄럽다		to be bothersome
아니꼽다		to be disgusting
용서하다		to forgive
만찬회		dinner party
가난뱅이		poor man, pauper
품삯		pay
출근하다		to go to work

A complete view of the Popjusa Buddhist Temple nestled in Mt. Sokni.